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130 St. George Street
8th FLOOR
TORONTO, CANADA M5S 1A5
MAY 1 2 1982

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821 1982년 5월11일(화)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4 Tuesday, May 11, 1982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 : 김 영 규
편 집 인 : 이 석 현
인 쇄 인 : 박 정 서
광 고 부 장 : 송 광 호

어머니날 맞아 한인회서 표창

장한 어버이·어린이

역경딛고 훌륭한 자녀기른 숨은 노력기려

5월10일 어머니날을 맞아 토론토한인회(회장 박인순)는 8일하오 한인회관에서 장한 어버이및 어린이 표창식을 가졌다.

열녀상을 받은 장숙자씨 등 10명의 수상자와 백여명의 교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시상식에서 구상회심사위원장은 경위보고에서 "각계에서 추천된 장한어머니 4명, 장한아버지 3명, 6개학교에서 추천된 장한어린이 17명을 서류심사, 이중 11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심사위원은 박인순 한인회장, 장영채, 고순복 부회장, 조영호노년회장, 전택균, 구상회, 조한철전 한인회장이었다.

이날 이상훈토론토총영사는 축사에서 교민사회의 발전은 가정에서부터라는 점을 강조, 모두 화목하고 서로 협조하는 모범된 가정이 되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특히 장한 어린이상수상자인 샛별한글학교 4학년 문회정양은 그동안 배운 한국말로 또박또박 열심히 공부하여 훌륭한 사람되겠다 고 답사, 박수갈채를 받았다.

이날 수상자의 명단과 추천경위등은 다음과 같다.

●장한 어머니

◉장숙자(열녀상)-65세. 4남1녀의 어머니. 남편 최흥남씨가 실명한뒤 44년간 가계를 이끌며 자녀들의 교육을 뒷바라지했음. 아들 최문길(치과기능사)씨와 종길씨, 딸 1명이 토론토에 거주. 갈보리한인장로교회 추천.

◉윤귀순(현모상)-64세. 2남3녀의 어머니. 일찍 남편을 여의고 자녀들의 교육및 가계를 꾸려왔음. 토론토에 2남2녀가 거주. 토론토한인연합교회추천.

◉양황리(현모상)-68세. 24세때 1남1녀를 두고 남편과 사별한이후 자식들의 뒷바라지에 몸과 마음을 바쳐왔음. 외아들 장연탁(조각가)씨가 토론토에 거주. 천주교노인회추천.

●장한 아버지

◉김희준(현부상)-83세. 장남 김성규씨(토론토거주:사업)와 차남 김명규씨등 2남2녀를 훌륭히 성장시켰다. 한인천주교노인회추천.

◉백봉기(봉사상)-교민사회에 숨은 봉사자로 한인들이 모이는 곳이면 어디서나 수리등 궂은 일을 말없이 해왔음. 백효죽(음악가)·백효증씨등 2남2녀가 미국과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음. 노년회추천.

●장한 어린이

◉우수상: 윤세중-품행이 단정하고 학업등 모든 면에 타의 모범이 됨. Y한글학교추천.

문회정-양보심이 강한 성격, 학습에 열중하고 한국말이 유창함. 샛별한글학교추천.

◉봉사상: 김루벤-온순하고 밝은 성격의 겸손한 학생으로 학교나 가정에서나 말없이 봉사한다. 요크한국인학교추천.

박혜진-봉사정신이 투철, 주위환경을 언제나 깨끗이 하는 모범학생. 쇼햄한글학교추천.

◉모범상: 이기일-품행이 타의 모범이 되고 비가 오나 추워도 빠짐없이 걸어서라도 학교에 오는 꾸준한 학생. 노스욕한글학교추천.

◆"어머니날"의 노래를 부르는 토론토한인회 간부들.

◆장한 어머니상의 주인공들 좌로부터 장숙자여사, 양황리여사, 윤귀순여사.

실명남편 받들기 44년

장한어머니 장숙자여사

실명한 남편을 받든지 44년, 한인회로부터 열녀상이란 큰 상을 받고 수상의 기쁨보다는 더기 남편의 눈을 뜨게할 수 있을까하는 기대에 들뜬 장숙자여사는 11일 유명안과의를 찾아 남편과 함께 미국 버팔로동쪽 로체스타로 향한다.

남편 최흥남씨가 실명한 것은 1939년 일제말기, 전쟁준비에 혈안이 된 일본은 휘발유 대신 카바이트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를 만들었다. 경성전기(한전의 전신)의 버스운전사였던 최씨는 운행이 끝난뒤 버스를 정비중 카바이트가 폭발 눈을 다쳤고 병원에서 3년이나 지냈으나 끝내 실명하고 말았다.

남편의 직장에서 퇴직금조로 받은 천원은 그 당시는 거금이었으나 막내 최종길씨(캐나다거주)가 고등학교를 졸업할때는 집까지 팔아야 했다.

구멍가게, 삯바느질등으로 4남1녀를 모두 교육시킨 최여사는 76년 사위 이인명(약사)씨의 초청으로 캐나다에 이민했다.

남편에게 광명의 기회를 주기를 염원했던 장여사는 한국에서 적십자병원등을 찾았으나 노령으로 수술이 힘든다는 진단을 받았었다.

76년 6월 이민직후 다시 유명한 안과의 쥬커박사의 집도로 기적같이 40년만에 남편 최씨는 광명을 다시 찾았고, 생전처음 자녀·손자들의 얼굴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시력을 되찾은 최씨의 기쁨은 잠시 6개월후에는 다시 시력을 잃었다.

장숙자여인의 집념은 여기서 그치지 않아 11일 다시 쥬커박사의 추천을 받아 시설이 더욱 좋은 미국 로체스타의 한 병원으로 향했다.

부산시에 감사문

워커, 방화사건 수사

(부산 8일=연합) 리챠드·워커주한미대사는 8일 김무연부산시장에 전보를 보내, 부산시가 미문화원 방화사건에 적극수사를 보인데 대한 감사를 표시했다.

워커대사는 특히 사건당시 2명의 소방대원이 민첩한 작전으로 화재발생직후 한 미국여인의 목숨을 구해준 데 대해 치하했다.

기록적 실업률9.6%

대 공황이후 최악의 경제

캐나다의 실업자수는 4월말로 1,233,000명으로 1930년대 이후 최고의 실업률을 기록, 야당인사, 비지니스계, 노동자들을 경악에 들끓게 했다.

7일 발표된 실업률은 계절요인감안 9.6%였다.

데이빗·크롬비 보수당 고용문제 전문가는 "캐나다는 서방 선진국중 유일하게 경제가 계속 악화되고 있는 나라"라면서 트루도 정권의 경제정책을 비난했다.

크롬비 의원은 비록 선진 7개국중 영국의 실업률이 11.8%로 가장 높지만 영국은 회복의 기미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앨런·맥케큰 연방 재무상은 캐나다 경제의 악화는 미국의 고이자율정책에 큰 원인이 있다고 말했다.

국제 재무상회의 참가차 7일밤 파리로 향발한「맥」장관은 파리회의에서 미국재무상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선진7개국의 실업률은 다음과 같다.

영국 : 11.8%
프랑스: 8.7%
독일: 7.1%
미국: 9.4%
일본: 2.2%
이탈리아: 9.2%
캐나다: 9.6%

제2회 한인민족상

12명접수, 15일 마감

오는 15일로 마감하는본사제정 제2회 한인민족상 후보 등록에는 5일현재 12명이 접수됐다.

예술상 3명, 학술상 1명 공로상 3명, 봉사상 5명이 수상후보로 추천서및 관계서류가 들어왔다.

민족상위원회(위원장 구상회)는 이미 전국 각지역 한인회장 앞으로 후보추천 의뢰서및"민족상 규약" 을 발송, 보다많은 적격자를 다수 추천해줄 것을 의뢰 했다.

전국의 각종 한인단체 교회, 또는 개인적(추천인 10명이상)으로 추천이 가능하므로 수상해당자(강력한 적격자)를 다수 추천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추천서 양식은 본보 광고란에 게재)

접수처 : The Korea Times, Toronto 1025 Dupont St. Tor. M6H 1Z7

연락전화 : 533-236 1~4

윤보선씨 차남 2년째 실종

FBI가 윤동구씨 행방 수사중

(서울10일=연합)재미교포인 윤보선 전 대통령의 차남 윤동구(30)씨가 거의 2년간 실종중임이 밝혀져 가족이 그의 행방을 주미한국대사관에 조회했다고 석간 중앙일보가 가족의 측근 소식통을 인용 10일 보도했다.

이같은 사실은 윤보선씨가 조지·부쉬미부통령 방한에 맞추어 귀국한 류병현 주미대사에 직접 아들의 행방을 수소문토록 부탁했고 귀임한 류대사가 미연방수사국(FBI)에 수사를 의뢰한데서 밝혀졌다.

소식통은 상업디자이너인 윤동구씨는 80년12월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내온뒤로 한국의 가족과 연락이 끊겼으며, 평소에 편지왕래는 없이 년1회 크리스마스 카드정도로만 소식을 전해왔었다고 전했다.

FBI는 이미 그의 행방에 대한 수사에 나선것으로 알려졌다.

社 告

이민사 자료수집

본사 병설 한인이민사연구실(실장 이석현)은 캐나다 전국 한인이민사에 참고가 될 자료들을 모아서 정리, 비치함으로써 이땅 한인이민사 정립에 뒷받침이 되고자 전국에 걸쳐 자료를 모으고 있읍니다.(당장 이민사를 기술하는 것은 아님).

이 연구실은 전국의 교포단체, 개인들에 이르기까지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항상 문을 열어, 이용의 편의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각지역의 해당자료들(행사안내서, 문화행사 초청장, 프로그램, 포스터, 기관지, 동인지, 주소록, 동창회지, 학술발표문등 아무리 개인적이고 사소한 것이라도)을 보내 주시는 친절을 기대합니다.

개인으로 볼 때에는 별로 쓸모 없고 대수롭지 않은 것이라도, 자료실에 모아 비치하면, 장래에 소중한 자료로 빛을 발할 것입니다.

지금도, 앞으로도 많은 협조(자료송부, 참고조언)를 부탁드립니다.

이민사자료란?

(1)개인에 관계된 자료-스크랩 북, 일기장, 회고록, 가족사진, 본국과 이민자 사이의 편지.
(2)사회단체에 관계된 기록-회의록, 신전문, 재정보고서, 단체약사, 단체헌법, 회원명부, 보도자료.
(3)이민안내관계 책자.
(4)교회관계 기록-세례, 혼인, 장례식, 회보, 기념 간행물, 빌딩기록, 사진, 주일학교 관계기록, 연차보고서, 재정보고서, 교인명부, 교회약사, 교회자소회의기록, 설교집등.
(5)신문들(캐나다엔 지금까지 11개 한글신문이 있었다.)
(6)구술인터뷰-녹음 테이프등.

자료접수처 :
한인이민사 연구실
The Korean Immgration Resource Centre C/O The Korea Times 1025 Dupont St. Toronto, Ont. M6H 1Z7 Tel : 1-(416) 533-2361

한 국 일 보 사

은하 보석상
ROLEX
가장믿고 살수있는
「로렉스 지정판매 대리점」
B) 534-7791, 534-9977
620A BLOOR ST. 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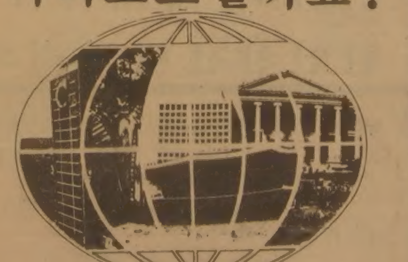
Merrill Lynch Royal Securities Ltd.
금·은·증권·Bonds·RRSP에 대한 투자는
361-3428(B), 447-1374(R) : 김상욱
증권은 경기변동에 따라 움직이는 특성이 있는데 경기회복 6개월 전부터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많은 투자 전문가들은 말하기를 "일, 이십년만에 한번 올수있는 절호의 기회가 증권투자에 오고있다."고 하는데 과연 그 근거는 무엇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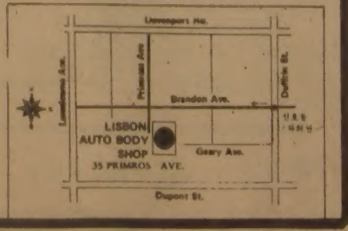
미도파 백화점
454 BLOOR ST.W
(B) 536-1692
(R) 245-3539

강찬영 변호사
537-3171
~
537-3174
454 BLOOR ST. W.
(Bloor & Bathurst)

강학수 종합보험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 R. S. P 은퇴연금
B) 868-0922
R) 622-5147


어디로모실까요?
모국방문특별요금
수속에서 출발, 관광, 도착까지
서울여행사
631A BLOOR ST. W.
B) 535-6004
R) 293-9970

LISBON AUTO COLLISION INC.
◎A급 BODY MAN
◎A급 페인터.
◎수리중 차대여
◎사고후 보험처리—책임보증.
◎TOWING 써비스
◎철저한 신용
고치고 다듬고
때빼고 광내고
※완전 BODY WORK !
주소 : 35 PRIMROSE AVE. TOR.
전화 : (B)533-8507. 8508
(R)439-6548 266-8925
이영두. 이건학 형제


종합보험

김 흥 량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주택, 상점보험
●사업보험
●R. R. S. P.
●INCOME AVERAGING ANNUITY
●PENSION
FINANCIAL & INSURANCE CONSULTANT
961-3774(B)
277-8733(B)
624-2103(R)
IMPERIAL LIFE
The Imperial Life Assurance Company of Canada
Suite507, 586 Eglinton Av. E. Tor. Ont. M4P 1P2
●CAPITAL GAIN, 높은 소득으로 인한 높은 세금의 조절및 경감방안
●기업계승에 따른 문제처리
●생활안정금고

MAILPERSON : PLEASE DO NOT DELAY. THIS IS A DAILY

영국, 포크랜드 전초공격 개시

해상봉쇄 압축·외교해결 진전없어

5일간의 소강상태를 깨고 영국전함들은 9일 포클랜드의 항공활주로에 포격을 퍼부었고, 두대의 영국군제트기가 알젠티나 정찰선인 나르왈호를 공격, 1명의 승무원이 숨지고, 1명의 해군사령관을 포함 24명의 알젠틴 군인을 생포했다.

외교노력에 의한 신속한 휴전협상에의 전망이 밝지않은 것으로 판단한 영국은 7일 200마일이던 포클랜드군도 해상봉쇄 수역을 12마일로 축소, 이 지역을 통과하는 알젠티나군 전투기및 전함에 무조전 공격을 퍼붓겠다고 위협함으로써 영국군의 포클랜드군도 상륙이 임박했다는 강력한 추측이 나돌았었다.

일부 관측통들은 정찰선 나르왈호 공격은 전면전을 위한 전초전이라고 보고 있으나 영국 국방성은 이를 부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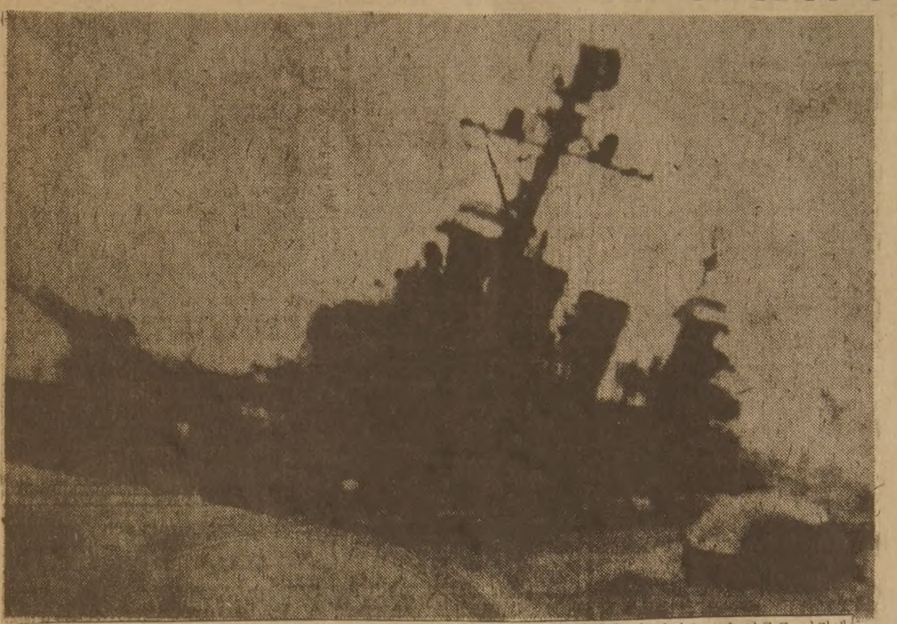
알젠티나는 나르왈호가 정찰선이 아니라 어선이었으며, 영국의 공격행위는 "배반"이라고 비난했다.

영국전함이 쏜 미사일로 알젠티나 병력 20명 정도를 실어 나르는 헬리콥터 1대가 포클랜드 수도 스탠리상공에서 격추됐다는 보도도 있었으나 알젠티나 국방성은 이를 확인치 않았다.

한편 부에노스·아이레스의 군사령부는 영국군 헬리콥터 1대가 「알」군에 의해 격추됐다고 주장했다.

헤르메즈 군함에 승선한 기자들은 9일 새벽 영국군은 4.5인치포로 스탠리공항 주위에 일제포격을 퍼부었다고 보도했으나 영국군은 이러한 작전들이 포클랜드 상륙전이 아니라 알젠티나군에 압력을 가중시키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자비에·쿠엘라 유엔사무총장은 영·알 양측 대표들과의 이틀째 협상에서 상당한 진전을 보았으나 중요문제에서 의견대립을 해결치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거대한 순양함 제너럴·벨그레이노호가 침몰하는 광경. 뉴욕타임즈가 게재한 이 사진은 2일 영국군 어뢰에 맞아 침몰한 벨그레이노호 선원 한명이 구명정에 옮겨 탄 뒤 재빨리 촬영한 것이다.

한국서도 장한어머니 선정

봉사남편모신 이정순여사

(서울 8일=연합)지난8일 제10회어버이날을 맞아 한국에서는 정부, 시,읍및 각종 공공, 사설단체에서 장한 부모님을 선정 표창했으며 한국정부는 세계에서 최초인 「노인헌장」제막식을 갖는 한편, 5월8일—14일을 노인주간으로 설정, 노인들에 대한 존경과 배려를 아끼지 말것을 당부했다.

이날 장한어머니로 표창을 받은 시민들중에 서울에 사는 이정순(48)씨는 각별한 주목을 받았다.

이여사는 충청북도 청주에서 태어나 12살때 9살위이며 앞을 못보는 현재의 남편 이성무씨와 결혼했다.

그 당시 남편 이씨는 신체불구로 직업이 없었으며 연로한 부모와 함께 살고 있었다. 결국 이씨가 집안을 꾸려 나가야만 했다.

어린나이로 감당키 어려운 시련이었으나 이여사는 운명에 순응하기로 결심했다.

이씨는 나무장사로 근근히 가계를 꾸려나갔다.

그러나 시련은 여기서 끝치지 않았다. 시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남편은 사고로 오른쪽 다리를 절단해야만 했다.

이같은 모든 역경을 이여사는 불평없이 헤쳐나가며, 궂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해 가족을 부양하고 5자녀를 훌륭하게 성장시켰다.

수상위원회는 "이씨와 같이 아내, 가장, 어머니의 3가지 역할을 동시에 훌륭하게 수행한 여성을 이제껏 본적이 없다"고 이여사의 장한 어머니 선정이유를 밝혔다.

"대 달러환율 10% 올려라" IMF, 한국 정부에 압력

(서울 10일=연합) 국제통화기금(IMF)은 달러와 원화의 환율을 10%올리도록 한국정부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

월·스트릿·저널지가 고위 한국정부관리의 말을 인용 보도한 데 의하면, 한국이 환율을 올리지 않을 경우 수출및 경제성장에 심각한 후퇴를 겪을 것이라는 한국정부에 보낸 IMF의 경고문이 IMF이사회에 제출된 비밀보고서에 들어 있었다.

한국정부는 IMF의 경고대로 환율을 10%올릴 경우 국내 물가및 기업재정에 크게 타격이 올것을 고려, 대신 금년에는 최소 6%의 변동환율을 실시할것을 검토중인 것으로 한국관리는 전했다.

지난 2월 IMF대표가 서울을 방문, 김준성 부총리및 일부고위관리들에 IMF의 경고문을 전달했을때 한국측은 막대한 대외부채를 예를 들어 IMF의 환율인상 제의에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대신 품질개선및 생산가감축으로 수출신장을 꾀하겠다고 말한것으로 이 관리는 전했다.

중학졸업 못하면 병역의무 면제

(서울7일=연합)한국정부는 금년부터 중학교과정을 마치지 못한 남자들의 병역의무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7일 병무청은 또 중학이상의 졸업자도 신체검사에서 우수한 점수를 딴 자에 한해 군복무토록 규정했다.

이번조처는 해방이후 군 적령기의 남성증가로 군의 질적향상을 꾀한것이다.

한국인 직장 쉽게 바꾸어

10년이상 근속 10% 미만

(서울 7일=연합) 한국의 산업근로자들은 직장을 쉽게 바꾸는 경향이 있어 기간산업기술 축적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 한국생산성본부가 7일 밝혔다.

「한국 기업 조직 및 인력관리」라는 제목의 보고서는 같은 직장에 10년이상 머무는 근로자수는 총 근로자의 9.6%밖에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와 대조적으로 일본인은 81.5%가 같은 직장에서 10년이상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같은 직장에 5년미만 머무는 근로자수는 총 근로자의 55%, 3년~5년은 44%, 3년이하는 16%다.

〈소론〉 알샌드 계획취소와 캐나다경제에 미치는 영향

엄 승 용 (알버타주정부경제관)

(편집자주)알버타주북부의 「알샌드」개발 취소(본보5월5일자)에 대한경제효과를 경제학 박사 엄승용씨가 기고했다. 엄박사는 알버타주정부 경제관으로 직접 현장에서 보고느낀것과, 경제적 효과면을 분석 평가했다.

지난 4월30일 년간 투자주최측인 「알샌드」(석유모래) 컨소티엄(투자집단)은 정식으로 136억달러 규모의 「알쌘드」 오일쌘드 개발투자계획을 취소, 캐나다 산업계와 국민을 놀라게 하였다. 같은날에 오타와정부와 알버타주정부는 각기 35억달러씩 정부투자참여를 발표하였고 공사투자액중 은행차입금이 상환될 때가지 소득세 면제할뿐 아니라 알버타주정부의 「로이얄티」를 크게 감면해 주며 막대한 정부의 지급보증도 불사하겠다는 극히 너그럽고 유리한 최대한의 정부측 양보에도 불구, 「알쌘드」공사 주최측인 쉘 석유는 정부 투자안을 거부하고 막대한 투자계획을 사장시켰다. 이것은 알버타 경제뿐 아니라 이 투자에 필요 철제자재등은 공급하게될 온타리오 제강업및 건설 연관산업에도 막대한 피해를줄것이 예상돼, 불경기에 고심하고 있는 캐나다 경제에 크나큰 실망을 안겨주었다.

「알쌘드」오일계획의 배경을 살펴보면 당초 알버타주 북동쪽 「아사바스카」강 근처에 있는 「오일쌘드」(유사)를 1995년까지 개발하여 일당 165,000배럴 생산을 계획했었다. 오타와 정부의 석유의 국내자급자족을 조속히 이룩한다는 국가정책의 일환으로서도 이 개발계획은 꼭 필요했던 것이며 재래식 유전이 고갈되어가고 있는 이때에 「오일쌘드」나 중질유같은 새로운 석유매장량을 개발하는 것은 무엇보다 급선무였던 것이다. 그러나 최근 세계석유시장이 완화되고 일시적으로 석유공급과잉과 석유값의 하락으로 말미암아 「알쌘드」공사의 경제수지성이 흐려졌으며 설상가상으로 인프레및 높은 이자율때문에 생산원가는 급증하여 예상수익율을 더욱 압박하게 되었다는 투자측의 부정적 결론의 해명이다.

이 136억달러의 공사경비는 철제, 씨멘트, 중장비등 구입자재및 전방연쇄산업의 승수효과까지 합친다면 적어도 500억내지 600억불의 간접효과를 가져오며 이밖에 노임지급에 의한 소득승수효과까지 계산한다면 GNP효과는 1000억달러라는 막대한 영향력을 가진 공사이다. 특히 이러한 투자혜택의 반 이상이 온타리오 제조업에 대한 주문및 생산확장으로 나타난다는 점을 감안할때 생산위축과 불경기에 고심하고 있는 온타리오 경제를 자극한다는 정책방향에서 볼때에도 이 투자계획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단기적인 유가저조와 이자율압박이라는 경제현실을 넘어서 정기적인 「에너지」공급관점이나 경기촉진제로서의 투자및 소득파급효과를 감안하는 국민경제 입장에서 볼때 이번 투자취소는 크게 가슴아픈 일이며 알버타뿐만 아니라 온타리오 경제까지 크게 혜택을 받을수 있는 기회를 놓친 셈이다.

캐 나 다
외환은행
364—2890
2 FIRST CANADIAN PLACE SUITE 4140

술 깨는 약 나온다

6개월내 市販

(LA) 취중운전자들을 위한 술깨는 약이 앞으로 6개월이내에 시중에 선보이게 된다

조이제약회사는 술깨는 약인 소버에이드(Sober-Aid)는 분말형태로 물에타서 마시게된다고 설명하고 이약을 먹으면 취중운전자의 좌우충돌운전을 40%까지 줄일수 있을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약을 실험한 남가주연구소 부국장 마셀린·번스박사는 이약을 복용한 취중운전사의 운전실력이 아무약도 복용치않은 운전사보다 8가지면에서 우세했다고 말했다.

〈독자투고〉 2세들 분출구가 필요

데이빗·고

70년대 벽두에 한국에는 청년문화라는 말이 생겨났고 그 열기는 수년간 전국을 들끓게 했다. 그 열기의 부산물이 곧 통기타와 청바지였다. 학교에서도 기타 못치는 아이들은 이상한 나라에서 온 사람취급을 받았고 새 청바지를사서 솥로 문질러 헌 옷을 만들어 입는것이 대 유행이었다.

그때 우리에게는 영웅(?)들이 있었다. 포크송 계열의 가수들이 그러했고, 최모 조모라는 작가들이 그러했고 이모 김모라는 영화감독들이 그러했다.

그 청년문화의 열기가 불면서 한국의 출판계와 서점가도 자리를 잡기 시작했고 한국 작가의 글도 베스트셀러가 될수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우리는 입시 지옥속에서도 노래를 했고, 글을 읽었으며 서정주, 김소월, 박인환의 시를 외웠다.

그런 일들이 계기가 되어 한국에도 청년 문화가 뿌리를 내렸고, 젊은이들은 자신의 혈기를 적절하고 유용하게 분출할 수 있는 출구를 찾게 되었다.

바로 그런 기회가 이민사회의 2세들에게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민자들에게 왜 이민을 오느냐고 물어보면 백이면 99명은 자녀를 위해서 온다고 대답할 거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1, 2년후에는 자녀와 말도 안 통하고, 밥도 같이 못먹게 된다면 이건 뭔가 잘못되고 있는거다.

부모는 된장국에 밥을 먹고 자녀는 냄새난다고 돌아서서 햄버거를 먹는 것은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광경이며, 부모는 자녀에게 한국말로, 자녀는 부모에게 영어로 말하는 것도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다.

이제 15살된 딸 아이의 가방에서 피임 기구가 나올 때, 국민학교 다니는 아들의 가방에서 Playboy지에서 오린 사진이 나올 때, 부모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눈물짓는다.

그러나 진정 불쌍한 건 아이들이다. 뭣도 모르고 학교에 나가고, 영어도 못하는 노란 아이라고 놀림당하고, 집에가 봐야 아무도 없으니 밖에서 놀게 된다.

조금 철이 들어 부모와 자신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싶어도 문화의 장벽, 언어의 장벽이 높기만하다.

그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70년대 한국에서와 같은 열기와 분출구가 필요하며 그냥 좋아하고 싶고, 흉내내고 싶은 영웅이 필요한 거다.

우리는 캐나다의 한 부분이 될 수 있으며, 되어야한다. 우리의 역사를, 문화를 이곳에 뿌리내리게 하려면 바로 2세, 3세들의 힘이 필요하다. 그들의 입에서 소월의 시가 흘러나오고, 이광수의 농촌문학이 이야기될 때, 이순신장군의 거북선을 이야기할때, 우리는 자녀를 위해 이민왔다는 이야기를 작은 소리로나마 할수 있다.

우리의 동생, 우리의 자녀는 결코 문제아가 아니다. 지금은 그들을 위해 우리가 무언가를 시작해야 할때인 것같다.

(미시사가 거주)

회장 서준경

라이온스클럽

지난5일 홀리데이·인(더퍼린×401)에서 열린 한인 라이언스클럽 제2회 정기총회는 아래와 같이 새 임원을 선출했다.

회장 : 서준경
부회장 : 김태진·이창복·김창갑
사무총장 : 최호영
재무 : 한광명
라이온테마 : 양은대
테일·트위스터 : 김홍량
이사 : 윤여경·김현모·강공선·성낙윤·이기훈·원장호

한국여성 최초의 거형회씨 히말라야람정峰 정복

高度 2만 3천피트 頂上에 태극기

(카트만두(네팔)) 최초의 한국여성이 고도 2만3천피트(7천10m)의 히말라야 산맥 람정봉정상을 정복했다고 7일 네팔 관광성 당국이 발표했다.

선경여자 산악회 소속 거형회(26)씨는 6일 네팔의 앵·티라이인과 함께 람정봉 동남쪽 능선을 타고 정상을 정복하는데 성공정상에 태극기를 꽂았다.

이로써 이들은 람정봉 정상을 정복한 최초의 여인이 됐다.

이들은 선경직물 관리부 근무 정길순씨가 이끄는 9명의 등반대 소속이다.

히말라야산맥 람정봉 정복을 위한 한인등반대는 지난 3월11일 한국을 출발 3월23일 베이스캠프를 쳐고 4월10일 정상을 공격할 예정이었으나 현지의 사정으로 일정을 연기했었다.

◆바로잡습니다◆

본보 5월5일자 1면 승공문화협회 관계기사중 「부회장을 박광철씨」로 바로 잡고 「자문위원란」은 삭제합니다.

공장가격 판매

16일, 대건회 바자

토론토한인천주교회 젊은 부부클럽인 대건회가 마련한 바자회가 개최된다.

오는 16일(일) 하오 3시 쎄인폴성당(퀸·이스트×팔리어먼트 1블럭동쪽) 지하강당에서 이번 바자회에 출품되는 생활용품, 기프트종류는 공장가격으로 판매한다고 관계자는 말하고 있다.

●출품종목:
◆음식류—김밥, 만두, 떡, 잡채, 밀반찬, 기타….
◆기프트류—쟁반, 꽃병($10—40), 책꽂이(북 엔드)
◆운동구—축구볼(가죽제) $20, 펌프 $6, 자전거자물쇠 $4.60
◆도자기, 생활용품, 기타.

새교장 구연원씨

세종한글학교 총회

(오샤와)세종한글학교(교장 김덕수)는 3월20 일 정기총회에서 새 교장에구연원씨(토론토 새한교회장로)를 선출, 아래와 같이 새 임원진을 구성했다.

교장 : 구연원
부교장 : 이임석
고문 : 김덕수·박태식
교사 : 초급반—구정애
중급반—최국강
고급반—오윤조

한편5월1일구성된 이사회는 다음과 같다.

이사장 : 박태식(학부형 회장 겸임)
총무이사 : 차자윤
이사 : 이창수·진경호·김성태·김천만·이영민·최회권·양춘근·김광석

신·구교장 이·취임식및 종업식을 겸한 여름야유회를 5월15일(토)상오11시 Lake View Park에서 가진다. 연락처 668—4652 : 구연원, 723—9761 : 박태식

作品그린 作家의 眞否가려

英國에 「예술탐정」

콘스터블 父子작품 많이 選別 아들이 그린것 교묘히 알아내

명탐정 셜록 홈즈의 전통을이어받은 두명의 영국인 사설탐정이 미술품의 진짜 작가를 가려내는 예술탐정으로 명성을 떨치고있어 화랑가의 화제를 모으고있다.

화제의 인물은 패리스와 이언.플레밍 윌리엄즈라는 2명의 탐정으로 이들은 지난6년동안 영국의 대표적인 화가 콘서터블의 작품과 그의아들의 작품을 분별해내는 색다른 탐정활동을 해오고있다.

이들이 벌이는 탐정활동은 대부분 콘서터블의 작품으로 알려진 그림가운데 그의아들 라이오널이 그린 작품을 찾아내는일.

콘스터블이 워낙 유명한 화가이다보니 그의아들들이 그린 작품까지 그의 작품으로 취급되고있기때문이다.

이들이 지금까지조사, 런던화랑가에 보급한바에 따르면 존 콘스터블작품으로 알려진 30여점의 소형풍경화가 미국인들에의해 소장되고 있으나 이중 상당수는 그의 막내아들인 라이오널 콘스터블의 작품이며 그중에는 라이오널의 바로 윗형인 알프레드 콘스터블의 작품도 있다는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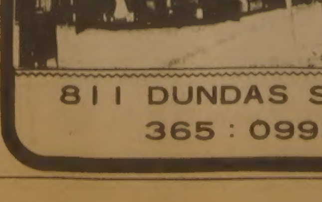
존 콘스터블은 『건초마차』 『플래포드 방앗간』 『도약하는말』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걸작들을 남긴채 1837년 막내아들 라이오널이 9살되던해 작고했는데 그는 당시 7명의 아들을 두고있었으며 그중 알프레드와 라이오널은 풍경화의 조예가깊어 권위있는 왕립아카데미에 심심치않게 전시회를 갖기도했다.

한 국 일 보
533-2361

WEDDING DREAMS LTD.

결혼에 필요한 모든준비가 되어있읍니다. 들리기만 하십시요.

● 웨딩가운 TUXEDO렌트 또는 세일
● 사 진
● 초청장 주문
● 꽃어렌지
● 결혼케익등



811 DUNDAS ST. W.
365 : 0995

재 캐나다체육회장배

골 프 대 회

일 시 : 1982년 5 월22일(토) 12시
장 소 : STREETSVILLE GLEN GOLF CLUB(미시사가지역)
참가비 : 30불(디너 포함)
시 상 : ○그로스 1~5등 및 상품
○네트 1~5등 및 상품
○니어리스트 상품
○롱게스트 상품
○각종 경품있음.
연락처 : 이 기 훈 ☎ : 298-3584
장 추 신 ☎ : 536-16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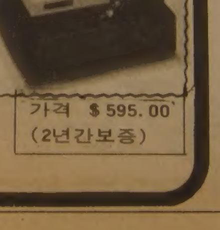
주최 : 재캐나다 대한체육회
후원 한인골프협회

SBS Specialized Business Systems Limited

◎각종 전자계산기 취급
PANASONIC, SHARP, N.C.R.
Sweda, Victor, Delta Systems, T E C.

◎판매, 써비스, 렌트
—Same day 써비스
—pick up & 배달
—Paper Rolls
—Free demonstration
Rent on lease with option to buy

◎ 2년간 보증



252—7377

822 The Queensway
(퀸스웨이 × 이슬링톤)
— 하비 햄버거앞 —

가격 $595.00
(2년간보증)

제2회 재캐나다 한인친선탁구대회

시 상 : 1982년6월5일(토) 오전10시
장 소 : 994 CARLAW AVE. (WEST WOOD JR. HIGH SCHOOL)
CARLAW AVE & EST WOOD
경기종목 및 참가비 :

단체전 (4단1복)	$30.00
남·녀개인전	$5.00
개인복식	$7.00

시 상 : 단체전 : 우승, 준우승
개인남·녀 : 1.2.3등
개인복식 : 우승, 준우승
연락처 : 송광호 (533—2361)
김동천 (243—0522)

주최 : 재캐나다 탁구협회

후원 : 재캐나다대한체육회, 미도파백화점, 브랜든스포츠, 거북이선물센타, 빅·세븐선물센타·한국관, 동양식품 연합상사

올여름 바다수놓을 패션

▲플로리다주 스튜어트해변에서 모델 자네트·로드리게즈양이 선보인 수영복패션. 여전히 밝은 색상 깊은 커팅으로 대담한 노출을 시도하고 있다. 파도와 고목줄기를 배경삼은 이사진들은 AP통신 필·산드린기자의 작품들이다.

《광림연재》

영원의 방랑객 ㊲

고 마태오

제4장 딴따라 미사의 파동

"내가 부리노에대해 갖고 있는 괴로움 이상의 고통을 나도 갖고 있다. 설사 네가 부리노를 잊어버릴수 있을지라도 나는 절대로그를 버리지 않는다. 그러나 현재 나의 가장큰 관심사는 사목생활을 막 시작한 새 신부로서 네가 받아야 할 훈련과정이다. 지금 너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장상에게 순명하는 마음자세를 키우는 것이다. 부리노 문제는 내가 적시적절하게 처리할 것이다."

"그러시다면 저는 순명앞에 저 개인의 사제적 양심마저 희생시키라는 말씀인가요?"

"태오야, 또 고집이냐? 사실 그러한 네 고집이 너를 너답게 하는 장점이 되고 있으나, 내 말을 잘 들어라. 너 개인은 네 양심과 함께 교회에 바쳐진 몸이다. 즉 교회를 위해 존재하는 너라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가 요구하는 질서를 위해 너.개인의 의견과 양심을 바치라는 것뿐이다."

"그런 것은 아니다. 나자신도 때로는 섭섭하게여기는 사실이지만, 흔히 교회의 쇄신은 지도자급인위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밑에서부터 시작한 것이었다. 너같은 말단 신부들이 사목전선에서 경험한 필요성들이 하나 둘 모여 그것이 교회 발전을 위한 절대적 요구로 발달되어 교회의 쇄신을 가져오게 했던 것이다.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순명은 네 사제적 양심의 소리를 말살하라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그러나 네가 알아야 할 것은 내가 말하는 양심의 소리도 그르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어느날 네 양심의 소리가 내 뜻에 맞는것이 될 수 있도록 너는 훈련을 철저하게 받아야 한다."

"어떤 훈련을요?"

"순명의 훈련과 인내의 훈련 말이다. 우선은 모든 일에 순명하고 때를 기다려라."

"물론 주님께 는 이생명 바쳐 순명하겠지만 인위적인 권위와 제도속에그르칠 수 있는 교회 지도자들에게도 이유없이 순명해야만 된다는 말씀입니까?"

"그들은 나를 대신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진리의 협조자이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분들이다. 너는 하나만 보고 있지만 그들은 열가지, 백가지일을 보고있는 사람들이다. 설사 그들이 그릇된 판단을 할수있다 치더라도 나는 그들에게 교회운영권을 맡겼다. 최선을 다한 그들의 결과적인 잘못은 내가 맡아 처리한다. 그러니 너는 그들에게 순명하여라."

"순명만이 현재 저로서 할 수 있는 일이군요?"

나는 좀 빈정대며 주님께 말씀드렸다.

"그렇다. 결국일은 내가 하는 것이지, 네가하는것이 아니지않느냐? 너는 다만 내 구원적 사업의 도구일 뿐이다. 도구는 자기를 사용하는 주인의 뜻을 거슬러 있을수 없다."

"잘 알겠읍니다. 주님. 그럼 이 싯점에서 저로서 부리노를 위해 할 수 있는일은 무엇입니까?"

"「구하라 받을것이다. 찾으라, 얻을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구하면 받고 찾으면 얻고, 문을 두드리면 열어줄 것이다. 너희들 중에 아들이 빵을 달라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있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너희는 비록 악하지만 자기 자녀에게 좋은것을 줄줄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아버게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더욱더 좋은것을주시지 않겠느냐?」(마태7장 7절~11절)"

"아, 주님 기도하라는 말씀이시군요. 부리노의 사정은 시급한데 기도만 하면 된다는 말씀입니까?"

"......"

"주님은 항상 두번다시 말씀을 안하시는 분이시군요. 한번말씀하시면 그만이라 이말씀이시군요."

"......"

주님은 내내 침묵을 지키셨다. (계 속)

THE KOREA TIMES is the only Daily(Except Sundays) serving the Korean-Canadians Fri. & Sat. issues printed together. Established 1974. Subscription $99./yr, $9./mo. 구독료(선금) 年$99. 月$9. ISSN 0712-1733 2nd Class Mail 5248.

한국관

연중무휴

오전11시
새벽1시

최고의 음식
저렴한 가격

회의실 마련

봉사합니다.
최고의 음식, 저렴한 가격, 성심성의껏, 염가로
단체손님 환영
결혼피로연등 회의실 60석, 각종회의석 준비

531 0277

대표 나옥녀

한국관

한국일보
광고 문의처
533-23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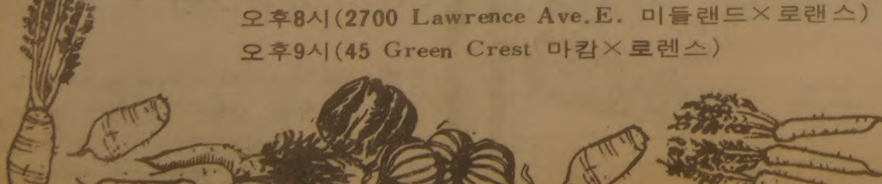
빅·세븐선물센타
각종한약. 우황청심환
화장품등.
533-7966 김 영 철

봉학농장

(전화 :1-775-6256)

5월 초순부터 본 농장에서 생산하는 봄배추, 부추, 짠지등을 아래와 같이 계속 배달하오니 교민 여러분의 많은 애용을 바랍니다.

수요일 : 오후7시(700 Ontario St. 셔본×블루어)
오후9시(5 Capri Rd. EAST MALL)
목요일 : 오후6시(55 Emmett앞 제인×웨스톤)
오후7시30분(521 Finch Ave.W. 배터스트×핀치)
오후8시30분(7411 Yonge St. 영×스틸)
금요일 : 오후6시(2441 Finch Ave.W. 핀치×웨스톤)
오후8시(2700 Lawrence Ave.E. 미들랜드×로랜스)
오후9시(45 Green Crest 마캄×로렌스)



개점7주년
Noritake
크게 싸게 팔기
5월6일부터 5월29일 6시까지

o최고급 100종류 진열
o어느 품목이든 정가에 35% 할인
o접시 한장도 살수 있음
o기간은 5월6일부터 5월29일까지
o일류백화점보다 비싸면 현금 즉시 반환
o냉면그릇과 큰접시는 정가에 25% 할인
o저회가 끝나면 다음은 Simpson's에서 Sale 하는데 5% 이상 비쌉니다.

AMIK CRAFTS
4841 Yonge St. Sheppard Centre 221-5990

韓·美·日·中共등 4개國
"蘇팽창沮止 공동利益"

"美중심 軍事협력 進展될것 北韓기습南侵, 성공적防禦"

와인버거 美國防·본사 曺淳煥특파원 會見

와인버거 美국방장관은 韓·美·日·中共 4대국간에 『협력을위한 공동조치는 없지만 지역안정유지와 아시아 태평양에서의 蘇聯의 영향력 팽창저지를 포함한 공동이익이 존재한다』고 6일 말했다. 와인버거장관은 미국과 한국, 일본및 중공과의 쌍무관계속에서 『군사협력을 위한 조치가 추진되어갈것이다』고 한국일보本報 파원이 제출한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밝혀 한·미·일·중공 4국간에 미국을 축으로한 군사협력이 진전되어 갈것을 강력히 시사했다.

◇와인버거美국방장관

지난달 한국과 동남아여러나라를 순방하고 귀국한 와인버거장관은 또 서울에 대한 북한의 기습을 성공적으로 방어할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예스』라고 분명히말해 미국의 일부군사전문가들과 학자들간에 논란되는 이 문제에 의문부호를붙게했다. 문답전문은 다음과같다.

―귀하가 의회에 제출한83회계연도연례국방보고서에서 북한은 사전경고없이 한국을 공격할 능력을 갖고있다고말했는데 북한이 기습공격을감행할경우 韓美연합군은 서울을 성공적으로 방어할수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렇다. 한국에서 우리들(미국)의목적은 침략을 저지하는것이다. 한국에서 전투행위가 재개되면 우리들은 한국과힘을 합쳐 침략가를 쫓아내고한국의 경계선을 되찾을 것이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얼마나 신속히 미군이 한국으로 증파될것인가.

▲귀하의 질문에대한 답변은 기밀에 속하기때문에 답변할수가없다.

―한국에 대한 북한의 군사위협을 귀하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북한은 1950년6월 한반도를무력으로통일하려고 했다. 필요하다면 무력으로 통일하겠다는 것이 북한의 목적으로 남아있다. 1970년이래 북한의 군사비는 GNP의20%수준에이르고있다. 북한의군사력은방어에필요한것보다 훨씬능가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시기가무르익었다고 판단하면 한반도를 군사력으로통일하려고 다시 시도할 것이다.

―귀하는 북한을 蘇聯의대리세력으로 보는가.

▲아니다.

―미국관리들은 아시아에서 소련의 군사력이 증대되었다고 말한다. 아시아에서 미국과 그 우방 그리고 중공간의 反蘇연합형성이 어떻게 되어가고있다고 평가하는가.

▲우리들은 일본및 한국과 각각 맺고있는 상호안보조약을 이행키위해 두나라와 군사협력을 계속하며 향상해갈것을 기대하고있다. 동시에 우리들은 미·중공 양국간의 고위관리들의 관계를 포함해서 중공과 우호협력관계를강화할 것을 희망한다. 우리들과 한국, 일본및 중공과의쌍무관계가 동북아시아에서 각각 침략저지나 지역안정유지에 중요한 것으로 본다. 군사협력을위한 조치가 이들 쌍무간 계속에서 진전되어갈 것이다. 우리들은 일본과 자주 협의해왔으며 또 합동계획에 의해 행동을 해왔다. 우리들과 중공은 범세계적인 것이나 지역안보 문제들에 관해 또 이익이 합치되는 곳에서 병행되는 행동을 취할 능력에관한 협의로 이득을 보게된다. 이들 4개국간에 협력을위한 공식조치는 없지만 지역안정 유지와 아시아 태평양에서의 소련영향력 팽창저지를포함해서 공동이익이 존재한다. 【워싱턴6日=曺淳煥특파원】

◇曺淳煥특파원

아르헨, 유엔休戰仲裁 수락

케야르總長제의 英선 "撤軍만이 先決조건"

【유엔본부·워싱턴5日AP聯=聯】하비에르·페레즈·데·케야르 유엔사무총장은 5일 아르헨티나가 포클랜드 분규 해결을위한 자신의 중재역을 수락,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이제 영국측반응을 기다리고 있다고 발표했다.

한편 아르헨티나는 케야르 사무총장의 이같은 발표가있은직후 외무성 성명을 통해 유엔중재로 영국과 평화협상을 벌일 용의가 있다고 선언한 반면 영국은 케야르총장의 평화안을 검토하고는있으나 아르헨티나의 撤軍확약이 없이는 어떠한 終戰案도수락할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케야르사무총장은 이날밤 安保理가 3시간30분동안 포클랜드사태를 비공개토의, 『유엔사무총장이 분쟁당사국과 교섭노력을 벌이는것을 적극 지지한다』는 내용의성명을 채택한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자신은 아르헨티나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접수했다고 말하고 영국정부도자신의 평화안에 큰 관심을 갖고 이를 검토중임을 분명히 밝혀왔으며 6일중 英國의 긍정적 반응을 얻을수 있을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全斗煥 대통령이 仁川市政보고를 받기위해 仁川시청에 도착, 金璨會시장의 영접을 받고있다.

"公職者가 먼저自省 意識改革 앞장서야"

全대통령 仁川순시

【仁川=尹國炳기자】全斗煥대통령은 6일 의식개혁의 필요성에대해 언급,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해당되지않을것이라고 생각하는 그자체가문제』라고지적하고 『공직자들은 누구나 다 자기의 과거를 되돌아보아 自省하고의식개혁운동에 선도적역할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全대통령은 이날상오 仁川시청에 들러 金璨會시장및관계국장으로부터 올해의 업무계획을 보고받은뒤 이같이 말하고 『앞으로는 모든공직자가 청탁 職權남용등이외에도 사사로운 情理에 따라 일을처리해서는 결코 안될것』이라고 강조했다.

全대통령은 『示威를 위한 행정은 절대로 해선안된다』고 강조하고 공직자는 휴일에 미리 行先地를 알리는등 모두 비상근무자세를갖춰 비상연락망을 확립하라고 지시했다.

어린이들接見 격려

全斗煥 대통령은 제60회「어린이날」을 맞은 5일하오 영부인 李順子여사와함께 「서울어린이賞」과 「착한어린이賞」을 받은 3백30여명의 어린이와 惠心園어린이합창단원30명을 청와대 綠地園으로 초대, 이들 어린이들과 즐거운 한때를보냈다.

全대통령은 이날 어린이들이 다과를들고있는다과장내를 돌며 어린이들과 일일이악수를나눈뒤 『씩씩하고 밝고 맑은 어린이들을 만나보니 한없이기쁘고 용기가용솟음치며 행복하다』고말했다.

英艦침몰 87명 死傷·실종

아르헨反擊 航母허미즈 作戰능력상실說

【런던·부에노스아이레스5日AP聯=聯】아르헨티나 유일의 순양함 제너럴 벨그라노號를침몰시킨 영국군은 4일 아르헨티나공군기들의 佛製 엑소세미사일공격으로 최신예 구축함 셰필드號가 피격, 승무원87명이 사상, 실종되고 해리어제트전투기 1대와 조종사1명을 상실하는등 포클랜드開戰이래 최대의 손실을 입었다.

이에앞서 영국은 지난1일에 이어 이날 두번째로 포트스탠리공습을 단행, 포트스탠리 비행장과 구스베리비행장의 활주로를 완전 파괴, 「사용불능」으로 만드는등 포클랜드전투는 막대한 인명피해를 내면서 확전되고 있다.

존·노트 영국국방상은 이날下院에 출석, 3천5백톤급 셰필드號가 포클랜드수역 2백해리「봉쇄구역」내에서 아르헨티나 전투기들의 엑소세미사일 공격을받고 화염에 싸인후 승무원들이 배를 버렸으며 적어도 30명이 사망한것으로 추정된다면서 확대일로를 걷고있는 포클랜드전투에서 영국군이 최초의패배를 당했음을 시인했다.

그는 또 이날 단행된 두번째 포트스탠리공습에서 해리어제트전투기 1대가 아르헨티나軍의 對空砲火에 격추되었으며 조종사1명이 사망했다고 확인, 의원들을 경악시켰다.

아르헨티나軍사령부는 아르헨티나공군의 프랑스製 쉬르·에탕다르 전투기가 셰필드號에 엑소세미사일2발을 발사, 그중1발이 셰필드號에 명중했다고 밝히고 다른 한발은 아마도 영국航母 허미즈號에 맞은것같다고 말했으나 허미즈號탑승종군기자들은 이를 부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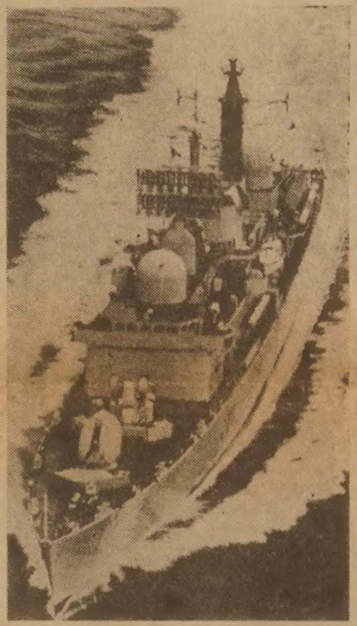
아르헨티나 방송들은 셰필드號격침이 지난3일에 있은 아르헨티나 유일의 순양함 제너럴 벨그라노號의 침몰에 대한 「반격」이었다고 말했다.

영국국방성은 영국기동함대가 보유하고 있는 3척의 구축함가운데 한척이자 영국해군의 최신예군함인 셰필드號의 승무원이 2백99명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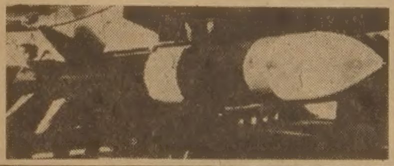
【부에노스아이레스6日AP聯=聯】영국기동함대의 주력함 공모함 허미즈호가 지난4일 아르헨티나 공군기들의 미사일공격을받아 크게파손, 작전해역으로부터 현재떠나고 있다는소문이 현재이곳 군사소식통들사이에 끈질기게 나돌고있다.

군부의 가까운 소식통들은 아르헨티나공군기들이 지난4일 영국구축함 셰필드호를 프랑스제 엑소세미사일로 공격했을때 허미즈항공모함에도 수차례공격을 가해 막심한피해를 입혔다고말했다.

한편 아르헨티나군부 역시 이 허미즈호가 지난4일하오 1시(현지시간) 이래 작전수행이 탐지되고 있지않은 점으로 미루어 전쟁해역밖으로 이동하고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침몰된 英구축함 셰필드號 아르헨티나 공군전투기들의 미사일공격을 받고 4일 침몰한 英國해군 구축함 셰필드號는 평시의 위용, 링스헬기를 탑재한 셰필드號는 미사일과 對潛무기들로 무장됐었다. 【런던5日UPI聯=聯】



◇英國구축함 셰필드號를 격침시키기위해 발사된 아르헨티나의 프랑스製 엑소세對艦미사일. 【파리5日AP聯=聯】

大都市파출소 3交代근무

근속 自動승진·處遇개선

내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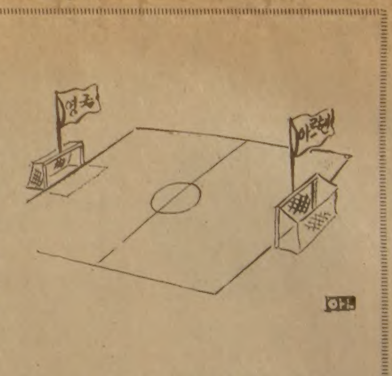
내무부는 6일「宜寧사건」을 계기로▲대도시 일선파출소의 3부제근무▲장기근속 순경의 자동승진제▲시간외 수당등 처우개선▲실적위주의 공정한 인사관리등 종합적인 경찰행정개선책을 마련키로 확정, 치안본부에 6명의 고위실무진으로「종합기획단」을 편성운영키로했다.

새로구성될 종합기획단은 일선경찰관들의 격무와 박봉등 고질적인 경찰행정의 제반문제점을 파악, 경찰관의 임용교육근무여건등의 개선책을 마련하고 관계부처와협의가 끝나는대로 이를 곧 실시한다.

盧泰愚내무장관은 6일하오1시 취임후첫 전국市道경찰국장회의를 소집, 이같은내용을 담은「지휘서신」을 시달, 宜寧사건으로 실추된 경찰의 명예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위해 전경찰이 심기일전, 복무기강을 확립하고 보다 철저한 근무자세를 갖추도록하라고 지시했다.

盧장관은 또 이번사건은 사명감이 결여되고 복무기강이 해이된 상태에서 피해가 확대됐다고 분석, 경찰의 사기와 복무기강을 바로잡기위해 행정적 개선책을 마련한것이라고 밝히고▲경찰은 정의사회구현의 선도로서 의식개혁운동에 앞장설것▲비상출동태세와 무기관리를 철저히할것▲겸손친절한 대민봉사체제를 확립할것등 5개항의실천사항을 시달했다.

社会漫評



총칼놓고 이걸로 합시다…

警官직무집행妨害 철저索出 嚴斷

대검은 6일『직무집행중인 경찰관에대해 폭행 또는 협박을해 정당한직무집행을 방해하는사범을 철저히색출 엄단할것』을 전국 검찰에지시했다.

대검은 이날지시에서『宜寧경찰관총기난동사건이후 일부경찰관의 사기가 위축된틈을노려 강력사건의 증가가예상될뿐 아니라 최근에는 교통법규위반 운전사가 단속경찰에게 폭행까지하는등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악의적으로 방해하는 사례가 잇달고있다』고지적, 『이러한 사태가 계속 방치될경우 치안유지에 매우 위해로운 요인으로 작용될것이 예상돼 이같은지시를 내린다』고 밝혔다.

地平線

세상은 바야흐로 경찰受難시대 같다。 4일 새벽에는 차량을 검문 검색하던 경찰관이,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달려든『滿醉승용차』에 치여 순직했다. 바로 그 1시간쯤 전에는 10대3명을 검문하던 경찰관과 방범대원등 4명이 칼에 찔려, 전치2주씩의 상해를 입었다.

▼이런것들은 경찰업무에 따른 위험이 얼마나큰지를보여주는 사례라하겠으나, 술에 취한 사람, 우범 청소년의 소행이라, 어디까지나 예외라고 할수있다. 그보다 심각한 것은, 오히려 경찰관이, 큰거리에서 당하는 곤욕이다. 예컨대, 4일밤 법규위반을 적발당한 택시운전사가 경찰관을 죽여버린다고 위협하며 난폭하게 차를 전진·후진시키는 등 소란을 피워, 30분동안 간선도로의 교통체증을 빚었다는따위.

▼그렇게 보아서 그런지, 이며칠사이 경찰관이 행패를 당했다는 보도가 잦다. 4일아침 신문만봐도 경찰관의逢辱 기사가 4건이나 실려있다. 그중에는 파출소 담벼락에오줌을 싸던 어떤회사 운전사가, 도리어제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전치10일의 상처를 입혔다는 사건도 들어있다. 경찰不信·경찰輕視태도가 분명히 드러난사례다. 이런것이 宜寧사건의 여파라고 한다면, 그 후유증은 너무나 심각하다.

▼그러길래 대검은 6일 경찰관의 직무방해 행위를 엄단하라고 지시했다. 그렇잖아도 검찰은 지난3일 교통단속에 불응하며 소란을 피운 버스운전사를 집회및시위에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한 일이있다。몰려든두경군에게 소리질러 「집단항의」를 유도했다는것이 혐의내용이다. 형법의「공무집행방해」가 「징역5년이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은 「징역7년이하」이므로, 法적용에 이미 「엄단」의 뜻이 담긴 것이다.

▼이같은 法적용에는 그버스운전사의 행위가「시위」에 해당할지 의문이 없지않지만 경찰이 왜 있어야하는가를생각하면, 검찰의「엄단」방침은 당연하다. 정당한 경찰업무에의 도전은 곧法질서자체에의 도전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민들은 경찰편에 선다。그러나 경찰 스스로는달리 自問하는 바가있어야 한다。이사회에 경찰不信·경찰輕視 풍조가 있다면, 그것은 法조문이 약한 탓인가。그것이 곧 宜寧사건만의 후유증인가。물음에대한 경찰의 自省이, 행동으로 표시되기를 기다린다.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구독신청은 (416) 533·2361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416) 532-2727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 동 산

김 종 조
535-0028
535-7200

SunLife OF CANADA

김 신 명
• 생명보험
• 연금제도
• 교육보험
• 그룹보험
• 주택·전물
• R·R·S·P.
922-3111 (B)
793-5531 (R)
791-8196 (R)

한국일보 광고 문의처
533-2361

YOUNG SOOK'S
보석상
○각종보석
○다이아몬드 품질보장
○최저가격
○뉴 디자인
○보석개조 교환매매
○보증서
215 Yonge St. 민 영 숙
(B)368-7961 (R)690-5217

깜빡 죽여주는 해장국 이 드디어 나타났읍니다.

◐개시일 : 4월29일(목)부터
◐가격 : 5불 50

정말 맛있는것 같애요…

맛으로 해결해 드리는 ―〈순대도 있읍니다〉

한 국 관 대표 : 나 옥 녀
•영업시간• 오전9시~새벽1시
628 BLOOR ST. W. ☎: 536-0290, 531-0277

恐怖의 「컴퓨터 戰爭」

戰術무기의 실험장… 포클랜드群島

미사일對미사일… 장군멍군

치명적海空戰, 단발로결판

可視거리 필요없고 空中戰도 레이다로

우주과학의 산물인 미사일과 정교한 전자장비들로 무장한 치명적 海空戰이 마치 장군 멍군의 장기시합처럼 포클랜드해역에서 진행돼가고 있다.

순양함 벨그라노호가 영국핵잠수함의 공격에 격침된 보복으로 아르헨티나도 5일 취역한지 7년밖에안된 영국의 신예 구축함 셰필드호를공격, 침몰시켰다.

영국기동함대의 기함인 항모 허미즈호에 승선하고 있는 한 기자는『저공비행하는 아르헨티나기가 허미즈의 레이다에 포착되는순간『셰필드호 피격!』의전문이 와 닿았으며 그 때이미 수평선너머에서는 검은 연기와 불기둥이 치솟아오르고 있었다』고 전했다.

군사전문가들은 현대무기와 새로운 전술무기의실험장으로서의 영·아르헨티나간의 전쟁에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현대해전에서는 함정을 이 재래식포를 쏠수있는 可視거리에서 맞설 필요가 없다. 이것은 전투기들도 마찬가지다.

숨바꼭질 하듯 요리 저리 몸을 숨기면서 적을 먼저 레이다로 포착하고먼저 미사일을 발사하는쪽이 승리할 수밖에 없다고 군사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현대의 전함들이 대부분 소형이지만 미사일을 장비하고 있기 때문에 2차대전당시의 巨艦 巨砲보다도 위력은 훨씬더하다.

3천5백톤급 구축함 셰필드호는 아르헨티나기가 쏜 단1발의 엑조세(날치) 미사일에 침몰했다. 셰필드급 구축함이라면 2차대전시 같으면 12발의 함포가 명중해야 침몰할수 있다고 전문가들은지적한다.

지난3일 영국구축함 콩커러호가 발사한 단2발의 타이거·피시어뢰에 격침된 아르헨티나 벨그라노호도 39년~45년 전시같으면 적어도 4발은 명중돼야침몰할수 있다고 한다.

1973년 중동전쟁에서 이스라엘과 이집트는수천발의 미사일을 지상전투에서 주고 받았다. 그러나 해전에서는 미사일전쟁다운 전투는 없었다.

프랑스가 만든 AM39엑조세 미사일이 실전에쓰인 것은 이번 셰필드호격침에서 처음이다. 영국함정이 미사일에 맞아 격침된것도 37년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대처영국수상의 한 측근에서는『셰필드호의 격침을 계기로 영국도 이제 현대해전의 공포를 인식하게 됐다』고 실토하고 있다.

영국구축함 셰필드호를 격침시킨 미사일 AM39엑조세는 고성능 폭약 1백65kg을 탄두에 부착하고있는 함대함 또는 공대함용의 신예병기다.

수면을 스칠듯 날아가기 때문에 레이다포착이 쉽지 않으며 사정거리가 64km에 달한다.

아르헨티나는 3대의 에탕다르機를 항모 5월25일호에서 발진시켜 셰필드호에 엑조세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그 중 1발이 명중되었다.

셰필드호에도 22기의 함대공 또는 함대함용 시라트(투창) 미사일을 장비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셰필드가 너무 쉽게 당한것은 놀라운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시라트성능은 정확성에서는 엑조세와 우열가름이 어려우나 사정거리가 46km로 엑조세보다 짧은 단점이 있었다.

영국기동함대도 모두 28기의 엑조세미사일을 장비하고있으나 셰필드는 예외였다.

영국구축함 셰필드는 이날 영국기동함대본영에서 떨어져 아르헨티나본토와 기동함대사이에서 작전구역 2백해리를 따라 적함과 항공기에 대한 초계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미국의 군사전문가들은『전투기의 충분한 지원도 없이 홀로 초계임무에 나선것은 상상할수도없는일』이라고 지적하고있다.

엑조세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로는 영국의 시울프 미사일로 알려지고 있는데 영국기동함대의 프리기트함 2척이 모두 24기를 보유하고 있다. 시울프는 음속 2배의 속도로 날아오는 4.5인치 재래식포탄을 요격할수있는 성능을 갖고 있다. 발사대에 부착된 2대의 컴퓨터가 목표를 탐지추적하며 7개 1조된 또 다른 컴퓨터가 요격에 몇기를 발사해야하는지를 결정, 미사일을 자동으로 발사한다.

그러나 크고 고공으로 날아오는 소련의 미사일을 맞히기위해 개발된 시울프가 파도를 스쳐 비행하는 엑조세를 요격할수 있는지는 아직 궁금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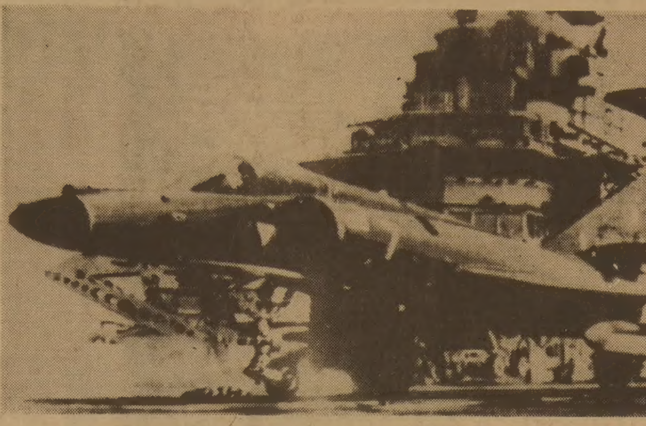
아르헨티나가 셰필드호 공격에 동원한 에탕다르機는 역시 프랑스가 미라지機를 함재기로 개조한것으로 마하1.05의 속도에 전투행동반경이 6백50km다.

30미리 기관포 2문, 공대함 엑조세1발 또는 포탄 1.8톤을 적재한다.

해리어機는 속도 마하0.95, 작전반경 3백km로 에탕다르에 못미치나 선회능력에서는 우수하다.

아르헨티나 항모에는 A4기 8대와 함께 에탕다르機 12대를 적재하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모두 26기(셰필드공격에 2기를 썼기때문)의 엑조세, 대공미사일 70기 (벨그라노 침몰로 70기는 수장)를 보유하고 있으며 영국은 28기의 엑조세, 72개의 시라트, 56기의 시캣트, 24기의 시슬러그, 24기의 시울프를 기동함대에 장비하고 있다. 【崔相鎬기자】



◇英구축함 격침… 아르헨 戰爆機 英國구축함 셰필드호를 격침시킨것과 같은 機種의 아르헨티나 쉬페·앙탕다르전폭기가 아르헨유일의 航母로부터 발진하는 모습. 【부에노스아이레스4日UPI聯=聯合】

엘리자베드도 슬퍼한 英艦被沈

◇해적으로 묘사된 대처首相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발간되는 한잡지가 마거리트·대처英國수상을 해적으로 묘사한 사진을게재했다. 【부에노스아이레스5日AP聯=聯合】

포클랜드 通信

구축함被沈 悲報

○…엘리자베드英國여왕은 아르헨티나전투기의공격을받은 영국구축함 셰필드號의침몰소식과 해리어 수직이착륙 제트전투기조종사의 사망소식을 듣고『몹시 슬퍼했다』고 버킹검宮 대변인이 5일 발표했다.

여왕의 둘째 아들인 앤드루왕자는 현재 포클랜드주변해역에 출동중인 영국기동함대의 기함인 항공모함 인빈서블호에 배속돼 헬리콥터조종사로 참전하고 있다.

버킹검궁대변인은『엘리자베드여왕께서 셰필드號의 침몰과 해리어기조종사의 사망 소식을 듣고 몹시 슬퍼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찰스황태자도 지난4일 스코틀랜드의 렌프루에건설된 한공장준공식에 참석, 포클랜드 주변해역의 영국기동함대에 배속된 그의 동생 앤드루에게 미안함을 표시하고 그러나 이분쟁이「정의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미사일에 束手無策

○…영국의 최신예 구축함 셰필드號의 피격소식은 전투임무를 수행중이던 영국함모 허미즈號 갑판의 레이다스코프에 아르헨티나 전투기가빠른 속도로 저공접근하는것이 탐지됐으나 공격권내 들어옴과 동시에 셰필드호는 미사일공격을 받았다.

허미즈號에 타고있던 한기자는 당시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멀리 수평선에는 피격된 셰필드號로부터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다.

셰필드號의 승무원들은 아르헨티나 공군기의 미사일공격으로 발생한 화재를 진압하기위해 수시간동안 진화작업을 벌였지만 불길이 너무 극심해지자 배를 버리라는명령이 하달됐다』

이기자는 허미즈號갑판에서 영국함대의 다른함정들로부터 지원의료반과 진화장비가 셰필드號에 접근하는것을 목격했다고 전하면서『셰필드號를 떠난 모든 승무원들은 구조됐다. 심한 부상을 입은 선원들은치료를받기위해헬리콥터로허미즈號에후송됐다. 부상자들은 들것에 실려왔으며 화상과 심한 공포감에 질려있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당시의 상황을전했다.

國家선택도 岐路에

○…아르헨티나에 거주하는 10만여명의 영국계 아르헨티나시민들은 포클랜드전쟁으로「영국을 선택할것인가 아르헨티나를 선택할것인가」라는 선택의 기로에서 고민하고있다.

26년전 아르헨티나로이주, 아르헨티나여자와 결혼한 부에노스 아이레스의한 영국계실업인은『나는 아르헨티나를 사랑한다. 그러나 아직도 영국에 충성하고싶다』고 말했다.

이실업인의 두아들은 영국학교에서 교육을받은뒤 아르헨티나군에 복무했는데 현재는 예비역.

이실업인은『만일 전면전쟁이 터지면 나는 영국을 위해 싸우겠다. 그러나 나의두아들은 아르헨티나를위해 싸울것이다』고말했다.

한편군사정부는전쟁을지원하는대사관,회사,선박,항공기, 일반가정, 개인을 막론하고 공격하겠다는 위협을 하고있다.

나가자 아르헨이여

○…포클랜드분쟁에서 아르헨티나국민의 애국심을 고양시키기위한 노래가 하루종일 라디오에서 계속흘러나오고있다.

『앞으로 나가자. 아르헨티나여.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라는 노래가사가 바로그것.

승무원가족들 불안

○…셰필드號 승무원 30여명이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영국의 승무원가족들은 혹시나 전사를 알리는전화가 오거나 국방성관리가문앞에 나타나지 않을까 하고 불안해 하고있다.

英機, 세네갈寄着

○…세네갈의 다카르국제공항이 포클랜드위기 발발이후 영국공군기들의 공수기지로 이용돼왔음이 5일확인됐다. 유럽과중남미의중간지점에 위치한 아프리카 서단의 다카르공항은 영국 전투기들이 본국과 남대서양상의 아센션島를 비행하는데 있어 중간 기착지로서 적합한 위치에 있다.

메아리

한국바둑「入神」

바둑은 달리「手談」으로 표현된다. 말로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를 짜내는 智略의 게임임을 넌지시 암시한다. 바둑을 조화라고도 한다. 단순한 흑백의 조화보다 머리와 마음의 조화임을 棋聖 吳淸源은 일찍 깨달았다.

棋는 道와 통한다. 棋道의 극치에 이르면 入神의 경지에 든다. 중국의 梁武帝때「圍棋九品」이라는 것이 만들어졌다. 오늘의 段位와 다르나 이九品은 각 단위에 별칭으로 따라 붙는다.

초단이면 守拙, 졸렬은 겨우 면했다는 뜻이다. 2단 若愚는 좀 어리석고 3단鬪力, 싸울 힘이 생기며 4단 小巧, 잔꾀가 붙는다. 5단 用智, 지혜를쓸 줄 알며 6단 通幽에 이르러야 깊은맛이 난다. 7단 具體, 여러 상황에 적응하고 8단 坐照가 되면 비로소 훤히 꿰뚫어 보게된다.

入神의 9단은 산너머 산같은 고난을 차례로 이겨내야 도달한다.「6旬耳順」이라는 원숙의 세계다. 우리 바둑계에 처음 入神의 전문 기사가 탄생했다.

2년전 바둑의 통일천하를 이룩한 曺薰鉉名人(한국일보제정)이 입단 20년만에 9단으로 승단하는 영광을 누렸다. 지난해부터 예고되었던 일이나, 새삼 우리 바둑의 급성장을 볼수 있어 여간 흐뭇하지가 않다.

바둑인구가 4백만으로 추산되는 우리나라에서 프로기사의 密度는 아직 엷다. 韓國棋院에 80여명이 소속 되어 있는 정도다. 趙治勳이 정상으로 버티고 있는 일본엔 入神의 9단만도 50여명이어서 호랑이굴을 연상케 해준다. 승단이 다소 쉬운 탓이 있겠지만 그 세력의 대단함이 짐작 간다.

한국의 바둑勢는 이제 일본에 그렇게 처지지 않는것 같다. 曺9단의 실력은 일본에 내놓아도 다섯손가락안에 꼽힌다는 것이 일본기계의 평가다. 날렵한 제비로 비유되는 그의 바둑은 지난해 면도날이라는 사까다(坂田) 9단을 눌렀다.

9단 탄생의 반가운 소식은 우리 바둑계에 큰 활력소가 되리라 생각한다.「순종 한국바둑」인 徐奉洙의 활약도 더욱 기대 된다. 이 프로기사들이 견인차가 되어 우리바둑을 세계정상에 끌어 올릴 날이 꼭 오리라 믿어진다.

한국 바둑은 분명 入神의 자리에 들어 섰다.

中共, 8월경에 全黨大會 열어

【北京6日聯=聯合】中共黨은 오는 11월경에 개최될 가능성이 있는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에 앞서 8월경에 공산당전당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중공사회과학원 부원장 馬洪이 4일 밝혔다.

日·中共경제학자회의에참석하기위해 中共을 방문중인 오끼따·사부로(大來佐武郞) 前日本外相(현 외무성고문)은이날 馬洪이 자신에게 81~85년에 걸친 중공의 제6차경제개발5개년계획에 대해 설명하는가운데 이같이밝혔다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말했다.

英, 軍需물자 릴레이 輸送

傭船이용 海上給油

兵力등은 C130이 맡아

영국해군의 포클랜드작전은 군사작전사상 거의 유례가없는 원거리작전. 영국본토로부터 1만4천8백km떨어진 포클랜드근해에서의 군사작전은 길게 늘어진 병참선때문에 영국으로하여금 병력보강을 비롯 연료, 식품, 장비및 부품등의 보급과 통신분야에서 큰애로가 되고있다. 이코노미스트誌최신호에 실린 영국의 빈틈없는 보급작전을 소개한다. 【편집자註】

기동함대의 연료보급은 傭船인 유조선들에의해 이뤄지고 있다. 영국해군 보조함대예하의 이유조선들은 포클랜드사태가 발생한이후 군당국이 민간업계로부터 빌었거나 징발한 商船들이다.

영국함대의 하루 연료소모량은 50만갤런. 기동량이 많은 구축함은 2~3일만에 한번씩 연료를 공급받고 있으며, 1회급유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약30분. 물론 급유량이 많은 항공모함의 급유시간은 더 많이 걸린다.

이기름은 민간업자들로 부터 사들이는데 포클랜드에서 가장 근거리급유지는 유조선 캔버러號가 포클랜드로 항진중 급유를받았던 시에라레온의 프리타운港과 나이지리아의 라고스港등 西아프리카연안의 항구들이다.

영국함대는 평상적으로 30일분의 식품을 비축하고있으나 10일에한번씩 보급을받아 비축물량을 확보하고있다.

보조함대에 소속된 냉동선들은 해상에서 식품을 다른배로 옮길수 있는 장비를 갖추고 있다.

이냉동선은 상선들로부터 비축물자를 받아 싣기도 하고, 직접 아프리카항구에서식품을 실어오기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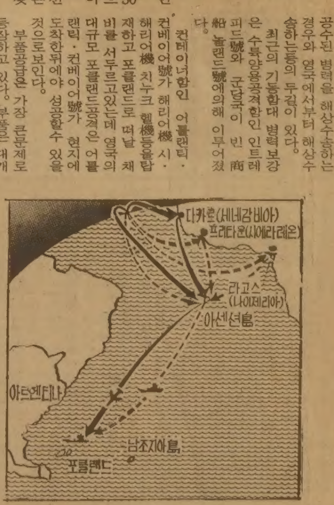
병력보강은 아센션島까지 공수된 병력을 해상수송하는경우와 영국에서부터 해상수송하는등의 두길이 있다.

최근의 기동함대 병력보강은 수륙양용공격함인 인트레피드號와 군당국이 빈 商船 놀랜드號에의해 이루어졌다.

컨테이너함인 어틀랜틱·컨베이어號가 해리어機 시·해리어機 치누크 헬機등을탑재하고 포클랜드로 떠날 채비를 서두르고있는데 영국의 대규모 포클랜드공격은 어틀랜틱·컨베이어號가 현지에 도착한뒤에야 성공할수 있을것으로보인다.

부품공급은 가장 큰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부품은 대개 크기는 작지만 不時에 또 아주 신속히 사용돼야하는 것들이다. 공격함들은 자주 쓰이는 부품을 보유하고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부품소모가예상보다빠르다든지, 배안에 없는 부품이 있어야할 경우에 특히 그렇다. 기동함대는 차량과 火器등의 장비를 갖고있으나 이들 장비에쓸 부품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대부분의 부품은 아센션島로 공수돼 거기서 배로실려가고 있다. 영국본토에서 아센션島까지의 공수는 거의 C130 허큘리스수송기가 맡고있다. 영국국방성은 최근 벨파스트수송기를 세내어 쓰고있다. 이 수송기는 세네감비아의 다카르공항과 반주르공항에 기착, 급유를 받는다.

기동함대와 본국과의 교신은 赤道상공 3만5천2백km지점에 떠있는 인공위성을통해 이뤄지고있다.



「休戰압력」속 和·戰의 岐路에

유엔仲裁案의 兩國반응

【워싱턴6日=曺淳煥특파원】 포클랜드전쟁에 협상해결 기운이 5일유엔주변에서 짙게 감돌기시작했다.

좀더 정확히 표현하면 총 쏘는것도 우선 멈추어야한다는 압력의 뜸이 감돌게 되었다.

그압력은 아르헨티나순양함의격침으로 또 영국구축함이 미사일에 맞아 막대한 사상자를 낸데대한 세계여론이 비등해진것만은 아니다.

서독, 프랑스, 이탈리아, 덴마크가 아르헨티나에대한 歐州공동시장(EEC)의공동 경제제재에서 탈퇴할것을 위협하면서 영국의 군사확대정책에 압력을 가했다.

사상자를 최소한으로 줄이려던 대처영국수상 바람이허사로 돌아갔고 그만큼 영국국민의 불만이 고개를 들게 되었다.

이이상 전투행위가 확대될때 걷잡을수없는 국면으로빠지게된다는것을 영국이나 아르헨티나가 비싼 값을 치르고 터득하게 되었다.

테레스·데·케야르 유엔사무총장은 5일 기자들에게 아르헨티나는 유엔중재와 해결방안을 원칙적으로 수락했다고 밝혔다.

영국도 휴전에의 관심을보이고 그 시급성을 인정했으며 6일 유엔해결방안에 역시 긍정적 반응을 보일것이라고 케야르사무총장은 말했다.

유엔사무총장은 협상해결에 크게 낙관하지는 않으나 다소 낙관한다는 조심스런태도를 보였다.

쌍방피해 엇비슷 명예·自尊心살려

먼저 수락땐 先攻어려워 서로 눈치만

美ABC·TV의 5일 심야해설방송은 유엔해결방안은 아르헨티나군이 포클랜드군도에서 철수한후 그 섬에 유엔기를 올리고 즉각 휴전에 들어간다는것이 골자가되고있다고 보도했다.

유엔해결안은 다소 모호하게 되어있으나 상호간에 주장을 굽히지않고 팽팽히 맞서오다가 서로가 큰 피해와 충격을 받은입장에서 오히려 모호한것이 상호의 체면을살리는것으로 효험을 발휘할수 있을것이라고 ABC·TV는 풀이했다.

영국은 아르헨티나 순양함을 격침시킨후 세계여론이야 어떻든 포클랜드섬 비행장을 다시 폭격하여 사용불능케하는등 군사적 일방 승리로 몰고가려했다.

1차와는 달리 성공적 비행장폭격이 아르헨티나에 준 타격은 크다.

당분간 아르헨티나 본토에서 포클랜드섬으로의 공중보급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아르헨티나의 반격으로 영국이받은 군사적충격도 이만저만한것이 아니다.

영국최신 구축함이 아르헨티나 전투기가 발사한 엑소세미사일에 꼼짝없이 맞아 침몰된것은 해상함정의 취약점을 백일하에 드러낸것을 뜻했다.

아르헨티나 조종사들의 훈련부족으로 미사일등 최신무기를 효율적으로 다루지 못한다는 영국의 안이한 평가가 여지없이 깨졌다.

또 아결과는 영국해군기동함대가 포클랜드 2백마일 봉쇄선을 효과적으로 펴나갈수있을지에도 의문부를달게했다. 20대의 영국 해리어기중1대가 격추된것도 적지 않은 손실이다.

포클랜드를 둘러싼 영국과 아르헨티나의 분쟁은 국가적 명예와 국민적 자존심의 대결양상을 띠어왔다.

하지만 양국의 국민적 자존심이 지난 수일간의 전쟁에서 함께 구멍이 뚫리고 멍이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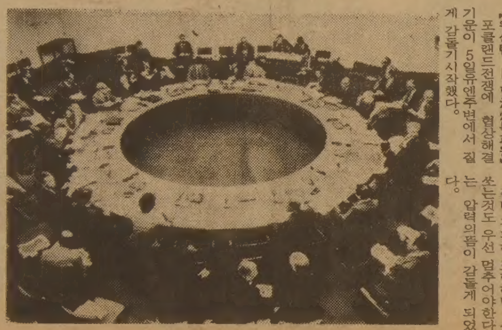
또 영국과 아르헨티나가 「장군 멍군」을 주고받고나서 일방적 군사승리를 거둘수있는 전망은 흐려졌다.

여기에 중재가 들어설 땅을 찾은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평화가 손에 잡힌것은 아니다. 설령영국이 케야르 유엔사무총장의말대로 6일 유엔안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더라도 전쟁이 일어나기전의 기본입장을 굽히고 나오는것도 아니기때문이다.

그점에서는 아르헨티나도 마찬가지다. 아르헨티나는영국구축함을 격침시킨후 쌍방간의 피해 균형을 그런대로 이루었다고 보고 또 다른 보복을 받기이전 세계여론에재빨리 호응하는 자세를 보였을뿐이다.

하지만 한번 휴전에동의하게되면 비록 협상이 제자리걸음을 할지라도 총을 먼저 쏘기는 매우어렵게될것이다.



◇「포群島사태」회담하는 나토본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의 유럽회원국 국방상들이 6일로 예정된 포클랜드사태에 관한 나토국방상회의에 앞서 5일 브뤼셀의 나토본부에서 회담하고있다. 【브뤼셀5日AP聯=聯合】

여사무원 급모

모집인원 : 약간명

자　　격 : 캐나다에 5년이상 거주한자로써 영어능통하고 영문타자에 능숙한자. (미시사가거주자 환영)

※희망자는 5월21일전에 (312)271－2757로 시카코시간으로 오후6시부터 8시사이에 콜렉크· 콜로 전화주시기 바람. (근무처 : 미시사가지역)

EAST WEST MARKETS EXCHANGE

(운동구사 캐나다지사)

제2회 한인친선낚시대회 개최공고

일 시 : 5월 24일〈빅토리아 데이〉 오전 9 : 00～오후 4 : 00

시 상 : (1)특등, (2)대어 1 등, (3)대어 2 등, (4)대어 3 등, (5) 4 등, (6) 5 등, (이상 모두 PIKE에 한함), (7)잉어대상, (8)희귀상, (9)노익장상, (10)부부상, (11)아동상 〈12세 미만)

장소 : BELL WOOD CONSERVATION PARK

※주의사항 : 1. 등록비 $5를 납부하고 등록번호를 받을것.
2. 82년도 회비 필한 회원은 본회가 주관하는 대회에 수시로 등록비가 면제되며 선거 피선거권과 리셉션에 초대함.
3. 1인 낚시대 1개 바늘2개 이하사용
4. 본인이 잡지않은것은 인정하지 않으며 질서가 문란한 선수는 입상에서 탈락될 수 있음.
5. 잉어상, 희귀상, 부부상, 아동상등에 해당자가 없을때에는 시상식후에 등록번호로 추첨함.
6. 1인2회 입상불허함.
7. 낚시대, 바늘, 미노스, 떡밥, 지렁이등 각자지참.

※대회조직 : 대회장 : 정삼열　부회장 : 곽창수　총무 : 최남해
진행 : 이장관, 백은범　재무 : 김종근　심사위원장 : 강철용
심사위원 : 김재용, 이근호, 구진모
안내 : 755－9902 정, 298－7806 최.

후원 : 총영사관, 한인회, 한국일보

찬조 : 무역진흥공사, 동궁식당(곽창수), 한국식품, 블로아안경(구진모), 미도파선물(장추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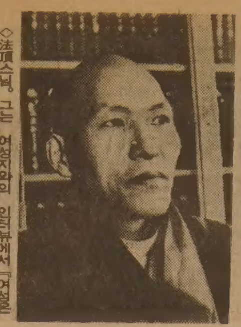
--- 토론토한인낚시협회 ---

家庭의 달맞는 한국家庭

5월의 여성잡지들은「가정의 달」을 맞아 오늘의 한국가정이 안고있는 여러가지 문제들을 폭넓게 다루고 있다.「妻權·實權·王權」,「핵가족2世」,「정신적이혼부부」「이혼조건」등 여러가지 가정에관한 특집기사들중에는 離婚에관한 기사가많아 離婚이 우리사회에서 큰문제로 대두하고있음을 알려준다.

어딘의 女性誌에서

어려운 이웃 도와온「족발집 할머니」
요절한 金敏夫詩人의 아내가 手記


◇法頂스님. 그는 여성지와의 인터뷰에서『여성은 꾸밈없이 자기를 갈고 닦아야한다. 그렇지않으면 신속 정확하게 俗物이된다』고 말한다.

苦學生에 장학금도

○…「족발 집」을차려 숨은 봉사와 선행을 펴 온 金양녀 할머니(60)의 이야기가「女性中央」에소개됐다. 서울新林동 4거리에서 좁은 골목으로 들어가 술맛이 않은 조그만 족발집을 차리고 있는 김양녀할머니는 6·25때 공산당으로부터 남편을학살당하고 떡장사 양키물건장사 옷장사 과일장사등 온갖 행상을하며 세 아들을훌륭하게 키워냈다. 아들을 키워낸 후에는「족발집」을 차려 2년간이나 이웃 주민들과 손님들에게 아주 싼 값으로 맛있는 음식을 후하게 대접해 신림동 일대에서는「인심좋고 따뜻한 할머니」로 이름이 나 있다.

또한 金양녀할머니는 10년동안 리어카에 돼지족발,닭래나물,빈대떡,시금치나물,삼계탕국물등을 싣고 직접 끌고 나가 이웃동네 4군데의 경로당등에 모인 외로운 노인들에게 술과 음식을 대접하고 있다.「족발집」에서 남는 수익금을 차곡차곡 모아 25명의 고교·대학생들에게 학자금을 대주어 얼마전에는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표창을 받기도 했다. 이 할머니는『노인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술·고기대접을 하는 때도 있으나, 노인들과 같이 밖으로 놀러다니는 일은 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그 이유는『노인냄새가 나서』라고 한다. 그리고『난 노인냄새가 싫어서 늘 목욕을 자주 하고 향수도 조금씩 뿌려 향기롭게 한다』고 수줍게 웃은 소녀같은 일면도 보이는 멋장이 할머니다.

◇새벽장을보고 돌아와 음식을 장만하는 족발집주인 김양녀 할머니.

지난72년 焚身자살

○…「일출봉에 해뜨거든 날 불러주오…」로 시작되는 가곡「기다리는 마음」의 작사자金敏夫 詩人。16세의 어린나이에 신춘문예에 당선, 이른바「天才시인」으로 화제의 인물이 됐다가 72년 의문의 죽음을한 金敏夫 시인의 아내가 쓴 수기가「女苑」에 발표됐다. 고교시절 이미「항아리」란 시집을 출간했던 金敏夫시인은 명석한 두뇌와 독특한기질로 화제에 싸였던 인물이었다. 방송작가로 일하며 그다지 어렵지않게살았던 金敏夫씨는 72년가을 자기집 서재에서 석유를뿌리고 불을질러 자살했다. 그의 비극적인 자살사건은 그이유가 전혀 밝혀지지 않았고 아내 이영수씨조차 이수기에서「그 특유의 詩的 靈感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삶보다 아름다운 것으로 택한 죽음인지, 그의 가슴속에 숨은 어떤 비밀을 나는 10년이 넘은 지금도 알지 못한다』고 고백한다.

이영수씨는 남편이 불에탈 때 남편의 몸을 끌어내려다 큰 화상을 입었다. 4년간여러차례에 걸쳐 화상입은 얼굴을수술했지만 큰흉터를 없애지못해 늘 마스크를 쓰고 다닌다. 이영수씨는 당시 사건으로 정신착란을일으켜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했다. 이영수씨는 이 수기에서 현재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밝히진 않고,『아내를 위해 많은사랑의 시를 짓기도 했던 그의 죽음의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나는 요즘도 그가 남긴시와 글들을 열심히 읽고 생각한다』고 쓰고있다.

德을지닌 女子돼야

○…「女性東亞」는 松廣寺 佛日庵의 法頂스님 인터뷰에 성공, 색채 화보사진과 함께 2백자 원고지 60여장에 이르는 긴 회견 기사를실었다. 하루내내 완강하게 인터뷰를 거절하던 法頂스님은 山寺에 어둠이 내리자 비로소 기자와 대면, 스님이된 개인적인 사연서부터 현대인의 삶과 사회현상및 불교교리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여성의 아름다움에 관한 견해등을 세세하게 풀어놓았다. 法頂은 대학을 중퇴, 俗家생활을 하다가 入山한 스님으로 出家의 이유는「자기답게 살기 위해서 였다」고 밝혔다. 학창시절부터 어쩐지 절분위기가 좋고, 절에 들어서면 내집에 돌아온 것 같은 기분이 들어 아마도 스님될 깊은 인연이 본래부터 있었던 것 같다고 스스로 생각한다.

그는 여성에 대해『여성은 아름다와야 한다. 꾸밈없이 노력하고 자기를 갈고 닦아 항상 꽃처럼 새롭게 피어 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않으면 신속 정확히 속물이 되고만다』고 스님의 입장으로서는「의외」이지만 상당히 의미심장한 꾀이를가진 여성관을 폈다.『현대인은 자기만의 얼굴을 잃어가고있다. 他人들 사이에서 좋다고 여겨지는 삶을 맹목적으로따르느라고 자기칫수에 맞지도 않는 다른 사람의 얼굴을 닮아가는 경향을 보이고있다』고 개탄했다.

法頂스님은 참으로 강하고 똑똑한 여성이 되려면「물의 성품, 물의 德」을 지녀야한다고 말한다.『물은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만드는 성품을 갖고 있지만 가두어 두면 썩어버린다. 항상 새롭게 샘솟아 흐르고, 어느 그릇에담겨도 말없이 부드럽게 수용되며 결국 그 그릇의 主人이 되는 물과 같은 德을지닌 여자가 되도록 힘쓸것』을 강조했다.

危機함께 극복을

○…주부생활은「가정의달」을 맞아「정신적이혼부부」를 특집기사로 다뤘다. 이혼을 경험한 여성2명의 수기, 女記者4명의「이혼」에 관한 집중취재, 사회인사 9명의 의견등으로 엮어진이 기사는 오늘날 늘어나고있는「정신적이혼부부」의 갈등을 과연「이혼」이라는 최후카드로 해결해야 될것인지를 파헤치고 있다.

종로를 주름잡던 이름난건달과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했으나 두아들을 낳은후 남편의 바람과 매에 못이겨 이혼했다는 한여성은『이혼한지 10년이 되었지만 솔직이 말해「이혼」을 후회하고있다. 아이들을「아비없는 자식」으로 살아가게 하면서 부부는 애정이 식었다고 즉각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맞추려는 노력, 그리고 자식에 대한 책임, 한 가정의 질서를 지키려는 의지로 가정을 지켜가야한다는 것을 뼈아프게 깨달았다』고 고백한다.

이혼한 또다른 여성은 이혼이 진실한 삶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면 이혼해서 자신의 행복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녀는 가난한 목사지망생인 남편과 결혼하여 외국유학까지 보냈으나 1남2녀의 자녀와함께 남편에게서 버림받고 세子女를둔 남자와 재혼하여「다시찾은 행복」을 들려준다.

여기자들의 집중취재는 우리나라실정에서 여성들이 이혼하면 얻는 것보다 잃는것이 더많다고 일러준다. 현행 가족법은 재산과 자녀양육문제에서 아내에게 불리하게되어있고, 이혼녀가 재 취업할 기회도 거의 막혀있다는것을 전해준다.

미국은 매년 결혼하는부부의 25%가 재혼하는 케이스이며 재혼하는 부부는 파탄율이 더높아평균 파탄기간이 초혼은 7년인데비해 재혼은 1년이 빠른6년이다.

주부생활사가 올해 실시했던 한국주부의 의식조사결과에 따르면 애정이없는부부의 경우라도 이혼을 절대반대하는 사람은 5·3%에 지나지않고 약63%가 이혼에공감하거나 이해하는 태도를 보였었다.

이특집에서 이혼에 긍정적인 사람들은『이혼은 흔히말하듯 여성들의「생의파탄」을 의미하는것이 아니라 잘못선택한 삶을 다시 시작하기위한 참된 용기』라고 강조한다.

김주수교수가 발표한「갈등가정과 이혼가정이 자녀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논문은 갈등가정의 자녀보다는 이혼가정의 자녀들이 정서적으로 더안정되어 있다고 밝히고 있으며『자식들 때문에 이혼을 못한다고들하지만부모가서로 증오하면서 사는것보다도 어느 한쪽부모밑에서 흡뻑 사랑받으며 사는편이 더낫다』고 밝힌다.

결국최종결정은 본인들이 내릴 문제이지만 부부들의정신적 이혼상태는 오늘을 사는 부부라면 한번쯤은 생각하고 넘어갈 문제라고하겠다.

法頂스님 인터뷰…그의 女性觀등 담아
「정신적 離婚夫婦」의 갈등과 離婚 특집

나의 이력서 金蘇東 ㊴
(題字 金蘇東)

週1회씩 名畵감상

이무렵 서울에서 개봉된 미국영화로는 윌리엄·와일러의「데드·엔드」(Dead End)', 헨리·코스터의「오키스트러의 少女」(One Hundred Men and a girl)그리고 프랭크·캐프러의「잃어버린 지평선」(Lost Horizon) 이 있다. 1930년대의 미국영화史를 다채롭게장식한 수작들이다. 그중에서도 가장 감명깊게 감상한것이「오키스트러의 少女」다. 결혼직전 사랑하는 여인과 나란히 若草극장(現스카라극장) 2층에 앉아서 디애너·더빈의 청초한 美와 스토코프스키의 아름다운 음악을들었다. 그후주1회의 영화감상을 신혼생활의 계획속에 넣었다.

사회제도의 불만과 억압된 민족적 울분을 해소해나가는 좋은 방편이기도했다.「잃어버린 지평선」은 티베트산악에 추락된 비행기 승객들이 지상의 유토피아를 찾아들어가는 소위 桃源境을 가상한 내용이다. 로널드·콜맨일행이 우연히 찾은 그신비한 낙원은 영원한 생명력을 보전할수있고 또인간들이 희구하는 최상의 천국이다.

압박밑에서 살고 있는 조선인의 피로운 심정을 한때나마 도피할수 있게한 후련한 드라마다.

그재치있는 대사와 드라머·투루기(劇作術)를 구사한 캐프러감독은「어느날 밤에생긴일」「오페라·해트」「우리집의 낙원」등 30년대의 미국영화를 그 독특한터치로 유선한 사람이다.

不滿과 民族的 울분의 해소책으로
당시 美映畵史빛낸 秀作 거의관람

이러한 토키외화들이 쏟아져나올때 우리영화들은 어떠했는가。韓국입본이 대륙침략에국력을 기울이던 때라 비단 영화뿐만이 아니고 모든것이 점점 쪼들려가는 수난기에 살고있었다。1937년에 羅雲奎가「五夢女」를 내고, 李圭煥감독이「나그네」를 만들었으나 무성영화일뿐더러 또 진부한 내용들이었다.

1935년에 경성촬영소가 만든 첫발성영화「春香傳」이후「아리랑고개」(洪開明감독)、「장화홍련전」(洪開明감독)、「노래조선」(金尙鎭감독)、「아리랑三篇」(羅雲奎감독)、「홍길동전」(李明雨감독)、「國境」(崔寅奎감독)등등 몇편의 에는 1940년대까지 외국작품에 비해 거의 10년이 뒤떨어진 무성영화로 일관했다. 그러한 답답한세월속에서 만들어진 한국영화는 거의가 일본인 와께지마 (分島)의 상품제조에 지나지 않았다. 와께지마·슈지로 (分島周次郎)는 당시 京城극장 (서울극장·6·25때 불타버렸다)의 소유자며 京城촬영소를 가진 제작자다. 그는 한반도에 군림한「오야붕」(親分·일본인 어깨의 왕초)으로 자유당말기에 林和秀라는 제작자와 비슷한 존재였다. 조선으로 부임하는 일본경찰관들은 으레「직기」(仁義·일본 어깨들의 인사하는 방법)를 드려야하는 그런 존재였다.

◇1930년대의 미국영화「오키스트러의 소녀」에서의 디아나·더빈.

『오래전부터 높은 고명을 배승하고 있는 와께지마·슈지로 오야붕 삼께 처음 배알하는 무례를 용서하십시오。이렇게 말씀올리는 본인은…」이렇게 시작되는「직기」는 장황하게 자기의 출생내력과 신분과 누구의 명을 받고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하고 조선으로 온 보고를 하는것이 통례다. 자유당말기의 林和秀와 分島같은 인물들이 왜 한국영화의 역사에 남아야 하는지、야릇한 숙명같이도 생각된다. 한국의 영화인들이 그러한 세력밑에서 반세기에 가까운 긴 세월동안 그들의 상품 제조기술자로 일해온 역정을 생각해볼때 험난한 길을 걸어온 한국영화가 마음아프게 생각된다.

1940년대에 들어서서 崔寅奎감독이 만든 고려영화사의 발성영화「수업료」가 나왔다. 국민학교 4학년학생의 작문을 영화화한것으로 명동 명치좌 (현 국립 극장)에서 개봉되었다. 면모를 새롭게한 말쑥한 토키작품이다. 아내와 같이 감상하고 이제 한국영화도 때를 벗었구나 하고 생각했다. 매우 그 여운이 좋았다는 것은 비단 우리들만이 느끼는 감정은 아니 었으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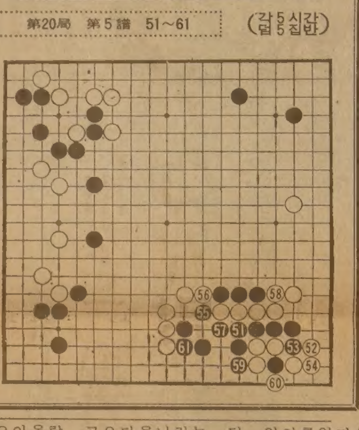
사실상우리영화는 1940년을계기로 해서 발성영화의 면모를 갖추기 시작했다. 그 다음해 41년에 최인규감독이 만든「집없는 천사」는 梁桂南씨가 녹음한 우수한 토키영화다. 방수원씨가 운영하던 고아원 香隣院의 고아를 주제로한 작품이다.

◇600년된 1·8kg짜리 도라지 무게가1·8kg이나되고 크기가 어린아기만한도라지 3뿌리가 설악산에서 채취되어 서울 한약건재상가에 팔려나왔다。보통 도라지보다 1천배나 큰 이도라지는 심마니 尹영철노인 (65·강원東草市雪嶽洞) 이 지난30일 새벽 설악산 오색약수터부근서 캔것으로 약재상들은『1백년넘은 도라지는 산삼과 같은 약효가 있다』며 줄잡아 6백년은 됐을것이라고 추정했다. 【서울南大門약재상에서 權周勳기자찍음】

제13기 名人戰 挑戰者決定리그

第20局 第5譜 51~61 (각5시간 덤5집반)

白(7段)河燦錫〈3勝2敗〉
黑(6段)徐能旭〈2勝3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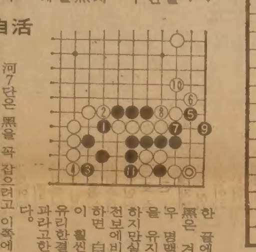
실리에 밝고 대체로 수수한바둑을 둔다는 평도듣는 河7단이지만 일단 적을 포위공격할 때는 숨쉴겨를도 주지않는것이 그의능기이다.

여기서도 우하측에서 黑을 몰아치며 기세가 자못 등등했는데 그러나黑61까지 일단락。徐6단은 평생의힘을 다했고 河7단은 본의아니게 한차례 약간의 의문수를 범했다.

앞서 黑51의곳을 끊지못한것이 후회거리였는데 지금은 또白52가 본인의 말마따나 생각부족。河7단은 그후한동안『왜 52로 54자리에 늘어두지 않았을까』며 못내 아쉬워했던 것이다.

白52를 54자리에 둔다면 어떻게 되나. 이에대하여 趙南哲8단은 참고도를 제시했다. 즉 ◎표로 늘면 黑은 자연 1쪽을 젖혀두게 된다。白2때 黑3이하11까지, 그야말로 동분서주한 곱에 黑은 겨우 명맥을 유지하지만 실전보에 비하면 白이 훨씬 유리한 결과라고 한다.

黑 절묘한 自活



河7단은 黑을 꼭 잡으려고 이쪽에 한집이라도 못나게할 요량이었을까. 그러나 黑55, 57이 25분간 고생한 절묘한수순。白58이 불가피하여 黑59、61의 제자리삶이 이뤄졌는데다 중앙쪽은 참고도에 비하여 白이 허해지고 있다.

河7단이 白52의 부담을 뉘우친 것도 이것으로 형세가 팽팽해진 때문이다. 【一凡】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104>
朴婉緖 作 金光培 畵

明暗 ⑧⑧

그러면서도 인재를 좋아하는 마음이 무서웠다. 만약 인재를 향한 그런 마음이 허탕을 쳤을 때 온세상은 순식간에 돌변해서 얼마나 깜깜한 지옥이 될 것인가. 상상만으로도 그런 고통을 견딜수 있을 것 같지않았다.

그래서 인재를 좋아하는 마음의 거짓없음이 소중하면서도 차라리 무서웠다. 너무소중해서 그렇게 너절한 거짓말로 먹지먹지 쌓는지도 모른다.

비단은 비단보자기에, 누더기는 무명보자기에 싸는다고만생각지말라. 사람은 때로는 가장 아끼는 보석을 보석함보다는 누더기나 북더기속에 숨겨두는게 더안전하다고 믿을수도 있다. 그렇다고해서 누더기가 보물의 값어치를변질시키거나 떨어뜨리진 못한다.

오목이는 인재와 헤어져 집까지 오는 사이에 몇번이나 천국과 지옥을 오락가락했다. 그녀는 이미 인재를 좋아하는 마음만으로는 기쁨을 얻을 수 없었다. 같은 마음으로 보답받기를 꿈꾸고있었다.

그런 욕심이 생기자마자 그녀는 그런 거짓말을 술술 잘도 꾸며댄것이다. 전혀 계획된바 없이 저질러진 거짓말에 그녀는 뒤늦게 아연했고 심한 부끄러움을 느꼈다. 만약 그게 탄로가 나면 인재가 자기를 얼마나 경멸할까? 아무리 그의 환심을 사기에 급급했기로서니 그런 치사한 실수를 하다니。잘 나가다가 순식간에 엄망진창을 만들어놓고 말다니。더 늦기전에 만회해야한다.

오목이는 허둥지둥 가던길을 되돌아와 인재네 회사가 있는 이십층빌딩 앞에섰다. 발 붙일만한 곳이라곤 뽀루지만한 홈집하나없이 오로지 매끄럽고 예리하게 직립한건물을 우러르자 일껏 다진 결심이 맥 없이 무너지고 말았다. 말을 마치고나서 자취도 없이 꺼질수 있는거라면 모를까 그렇지못하고는 도저히 아까 한 말이 모두 거짓말이었단 고백은 못할것 같았다.

그녀는 황급히 이십층 빌딩앞을 떠났다.

그녀가 얹혀사는 미순이네는 여전히 대문에서 삐걱 소리가 나는 한옥이었다. 그러나 곧 강 건너에 신축한 양옥으로 이사를 가게 돼있었다. 그건 이집 식구 모두의 오랜 소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목이만은 섭섭했다.

삐걱하는 대문 소리와 사람을 보듬어안아들일듯한 한옥의 구조는 처음부터 오목이에게 뭔가 옛일을 불러일으킬듯한 예감을 주었었다. 그녀의기억에의하면 그런것들은 초면(初面)이었지만 기억과는 다른 어떤 지핌에 의하면 그건 구면이었다.

미순이네 식구들은 오목이에게 다잘해주고 오목이 역시 그 집에서 꼭필요한 존재가 되고자 손발이 다 닳도록 노력해서 모르는 사람은 오목이가 그집의 생판남이라는 걸 짐작도 못할만큼 잘 지냈다.

그러나 오목이가 마음속으로 부터 그집 식구에게 정이 들었던 건 아니다. 입적까지 시켜주면서 한 식구처럼 대해준 그집 식구에 비해 오목이의 속마음은 냉담했다. 그녀가 정든건 식구들이 아니라 그 집이었다.

그집이처음부터 구면인것, 같은 느낌, 오랜만에 귀향(歸鄕)한것 같은 푸근함과 편안함이 남의 식구와의 화합을 도왔을 뿐이었다.

오목이는 일부러 대문을천천히 활짝열면서 그 삐이걱 소리가 길고 은은하게 그녀의 귀청을울리고 마음까지 스미게했다. 아주 옛날, 어릴적보다 더 옛날부터 들어난것같은 그립고 안온한느낌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

流星의 賦 <376>
李炳注 作 李友範 畵

고독한 英雄 ㉛

감군(監軍)으로 하여금 시비와 흑백을 가리게 하여 결판을 내자는 홍계남의 고자세(高姿勢)가 경기감사 심대를 위축케 한 모양이다. 심대로부터 그 이상의 강청은 없었다.

드디어 명나라의 전투부대가 압록강을 건넜다는 소식이 홍계남의 진영에 들어 온 것은 그로부터 수일 후의 일이다.

압록강을 건넌것은 요동 광녕진수부사령관(廣寧鎭守副司令官)인 양소훈(楊紹勳)휘하의 군대였다. 부총병 조승훈(副總兵 祖承訓) 지휘하의 1천명, 유격장왕수관(遊擊將 王守官) 지휘하의 1천명, 천총(千摠) 지휘하의 5백명, 참장 대조변(參將 戴朝辯) 지휘하의 1천명, 도합 3천5백명이었다.

그런데 조승훈은 평양성 근처까지 갔다가 왜병 일명의 추격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청천강과 대령강을 건너 후퇴해 버렸다.

병조참지 심희수는 구련성(九連城)에 있는 양소훈에게로 가서 다시 조승훈이 평양부근에 와서 주둔해주길 청했다. 그러자 양소훈이 한장의 문서를 내 보이며 노발대발했다. 그 문서는 조승훈의 보고문이었는데 다음과 같이 적혀있었다.

『조선 군사의 일부가 적에게 투항하여 우리 군을 배신하였으므로 패하게 되었다』

심희수는 깜짝 놀랐다. 전혀 사실무근한 얘기였기때문이다. 양소훈은 심희수의 석명을 듣고 노기를 다소 풀긴 했으나 무슨 결단을 내리려고 하진 않았다.

행재소로 갔던 원창과 이준호가 돌아왔다. 계남의진중에 화색이 돌았다.

원창은 장계를 병조판서 이항복에게 전했다고 하고 임금님의 하회를 아무리 기다려도 소식이 없기에 되돌아 왔노라고 했다.

일시 돌았던 화색이 다시 음울한 공기로 변했다. 신불이 투덜댔다.

『자네들을 믿고 보냈더니 그게 무슨 싸가지없는 짓인가. 왜 직접 임금을 만나지 않았는가』

『임금을 그처럼 함부루 만날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하고 홍계남이 신불을 달래고

『적지를 통해오기도 했을텐데 얼마나 수고했는가. 그런데 병조판서 이항복은 뭐라고 하더냐』

고 물었다.

『지금 각지에서 의병이 일어나고 있는 처지라서 조금 시기를 두었다가 논공행상도 할 겸 무슨 조치를 취할 것이니 그리 알라는 말이 있었고, 혹시 홍부장이 홍섬민 대감의 친척이 아닌질 물었읍니다』

『그 밖에 보고 들은 것을 말해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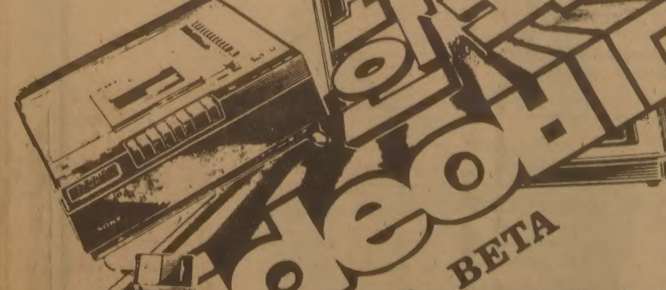
이 물음엔 이준호가 답했다.

『명나라가 도와줄 것을 고대하고 있는데 명나라는 잔뜩 조선을 의심하여 도와줄 듯도 하고 도울 생각이 없는듯도 합니다. 얼마전에 조승훈이 평양 성을 쳤는데 형편 없었읍니다. 싸워서 이길 생각이란 조금도 없는것 같아요. 가는 곳마다에서 소를 잡아라, 돼지를 잡아라 해갖곤 부녀자들을 농락 하는데만 눈을 밝히고 있어요. 그런 원병이 수십만이 온들 무슨 보람이 있겠읍니까』

이때 원창이 준호의 뒤를 받았다.

『그런데 조정에선 명나라의 원군에 나라의 사활을 걸고 있는듯 했읍니다. 그때문에 우리의 장계 같은 면 마음 쓸 여유도 없는거죠』

한국일보
구독 신청은
TEL : (416)533·2361

직수입
한국 Video 비데오

3/4 · VHS · BETA
신입회원모집
회비 1년 $240 6개월 $120
☆지방대리점 문의환영

● 선명한 색상의 화면, 인기있는 프로그램
지금 고국에서 인기 절찬속에서 방영되고 있는 최신 프로그램을 여러분 가정에 선사합니다.
선미광고는 미주지역 최초로 정식단독 계약하에 정선된 TV프로그램 300여편을 직수입하여 공개보급코저 합니다. 요즘 몇몇 상점에서 L·A, 뉴욕, 시카코등지에서 산발적으로 카피한 카셀테프를 확보하며 임대하고 있는바 이는 화면질이 고르지못함을 양지하시고 질과양을 비교 선택하여 주십시요.

NO RENT, ONLY SALE
어린이교육용~지능교육 및 오락물
종 교 용~기독교 및 불교관계
성인교육용~민병철생활영어교재, 책자에 테이프, 그리고 비데오테프

RENT
특집 오락물
사극, 현대물, 희극, 비극, 영화, 수사물, 문학작품, 쇼, 기타…
스포츠(태권도)82년 국제마라톤 서울실황중계
바둑실전및 기초교육, 꽃꽂이, 붓글씨교육등.
그리고 한국 프로야구시합 중계5편등.

★★★★ 토론토대리점~다운타운 미도파백화점 ★★★★

SUN·MI GRAPHIC STUDIO
454 A BLOOR ST W TORONTO MIDOPA 31
B.531·6430 R.746·3712
미도파 454 BLOOR ST.W. B 536-1692

「醫師수급」 주먹구구式

醫科大 정원 凍結

신입생增員·대학新設 억제

늘어나는 醫療시혜에 逆行

文敎部 "86학년도까지 기존人力활용"

우리나라의 의사수급계획이 완전히주먹구구식이다. 인구자연증가, 무의촌해소, 의료보험확대등으로 의사수요는 매년급증하고있는마당에 당국은 83학년도부터 의과대학신입생 정원을 동결하고 의과대학신설도 일체 불허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지난해까지만해도 매년 5백명~1백50명씩 의대정원을 늘려왔던 당국이 아무런 합리적인 설명도없이 갑작스런 의과대학정원을 오는 86학년도까지 현정원에서 묶기로한것. 이런방침이 강행되는경우 선진국에비해 의료혜택을 못받고있는 현실정에서 갈수록 의료인력의 절대수가 모자라게되고 복지국가의 이상에도 역행하는 것이라는게 많은 시민들의 지적이다.

의과대학의 증설이나 신입생증원은 전국의 의료인수급계획을 수립하는 보사부가문교부에 요청, 결정하고 있는데 지난해 10월 『경제개발5개년계획기간중인 오는 86년까지 매년 1백50명씩을 증원하겠다』고 발표했던 보사부가 이번에는 문교부에 정원동결을 요청하고 나섰다.

문교부당국자는 6일 의대정원의동결 이유에대해 『최근 보사부가 「현원 수준」을 강력히 요청해와 내년도부터는 늘리지않기로 했다』고밝히고 『보사부측이 현원동결을 요구하는이유를 자세히밝히지는않고있으나 아마도 기존의사들의 입장을 고려한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의사들의 권익단체인 대한의협은 최근 회장선출을 위한 정기총회에서「의대정원 현수준동결」을 협회측의 공식방침으로 채택하고 이같은 입장을 보사부에 전달했었다.

대한의협의 한관계자는 의대정원의 현수준 동결건의이유로▲현재의과대학시설수준이 증원을 감당할수 없고▲기초의학을 가르칠 교수요원이 태부족하며 ▲무조건증원보다 의료인력의 재배치등으로 기존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이 더욱 시급한데다가▲선진국형 의료인력공급을 지향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점등을 지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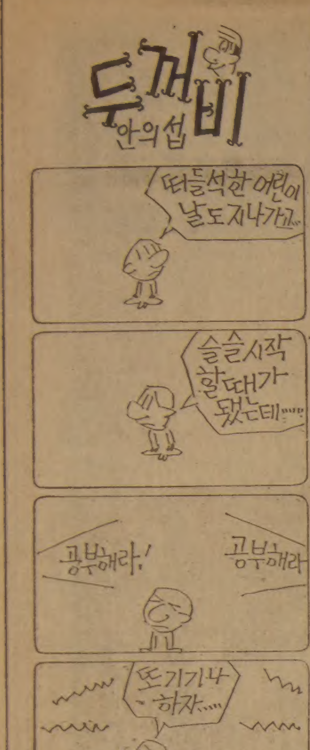
이협회가 조사한 자료에따르면 우리나라의 의사수는 경제수준에 비해 현재 「공급과잉」이라는것인데 우리나라의 인구수대의사의 비율은 80년 현재 인구1천5백20명대 의사1명이며 이같은 비율은 『우리나라보다 국민소득수준이 높은 이란이나 멕시코보다 인구당 의사수가 많은편』이라는것.

실제로 우리나라의 의과대학숫자는 모두 22개로 인구1백68만명에 의대1개의 분포를 나타내고있어 미국1백70만명에1개, 일본1백58만명에 1개에 비하면 선진국수준에 달해있는게 사실.

그러나 의과대를 졸업한의사들은 대도시에만 몰려들어 의료혜택이 해외로 빠지고있고 또도시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답보상태에있어 의료혜택을 받지못하는것. 이런사정을 고려, 보사부는 의료인력수급전망에서 금년도 총수요인원을 2만1천1백90명으로 잡았으나 현재의 공급능력은 1만9천1백60명으로 현재에도 10·5%의 의사부족 현상을 나타내고있는 실정이다.

또 의료보험·보호의 확대실시에 따라 의사에 대한 수요는 해마다 늘어날 추세에 있어 오는86년에는 3만20명에 달할것으로 보여 현재의정원이 유지될경우 의료인력난은 앞으로 가중될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이같은 의대정원동결방침에 대해 한의료인은 『의료보험·보호확대로 의사수요가 급증할것이 분명한만큼 시설미비, 교수부족등 의대자체내의 문제를 해결해서의 의료인력수급에 차질이 없도록해야할것』이라고 말했다.



◇결혼식하례객을 태운 마이크로버스와 어린이날을 맞아 야외로 가는 승객을 태운 트럭이 충돌, 55명의 사상자가 났다. 〈독자 金炳權씨(韓隆농상대표) 찍음〉

갖가지 行事… 갖가지 事故

어린이날에 멍들고 숨진 어린이들

건널목 참변·輪禍·迷兒

어린이날이었던 5일 화창한날씨속에 전국에서는 갖가지 행사가열려 어린이들을 즐겁게했으나 교통사고등으로 5명의 어린이가 숨지고 행락에 나선 어린이와 부모등57명이 부상을입는등 얼룩진 휴일이됐다. 이날 상오10시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는 제60회 어린이날 기념식이열려 서울 어린이상및 청소년상수상자 45명을 비롯 많은어린이가 상을받았고 하오2시부터는 孝昌운동장에서 2만여명의 어린이와 학부모가 참석한가운데 가장행렬·모형비행기 쇼등 다채로운 기념잔치가 베풀어졌다. 이날 서울에서만 9백59명의 미아가발생, 이중 4명은 6일까지도 부모가 나타나지않고있다.

아기업은 姙婦, 철길 꼬마구하다 慘死

딸膳物과함께…不具남편"내게看守職을"

◇김정근군(3)을 구하려다 함께숨진 조해옥씨(32)와 아들 상기군。사고건널목의 간수직을 희망한 남편 윤종원씨。【聯合】

【尙州】5일상오11시30분께 경북尙州郡咸昌邑允植里 철도건널목에서 이마을 조해옥씨(32·여)가 榮州발 金泉행 4완행열차(기관사 김정우·34)가 달려오는것을 모르고 건널목에서 놀고있던 이웃 金영주씨(34)의 3남 正根군(3)을 구하려고 뛰어들었으나 열차가 덮쳐 조씨와 업고있던 아들 尹상기군(3)·正根군등3명이 모두숨졌다.

건널목건너 자기집 마당에서 사고를 목격한 金영희씨(22·여)에 따르면 조씨는 이날 철도건널목을건너려다 열차가 달려오는것을 보고 正根군을 구하려고 붙잡는순간 열차가덮쳐 正根군은 열차에깔리고 조씨는 열차에 머리를 받혀 6m밖으로 나동그라졌다는것. 사고순간 조씨의 등에 업혀있던 아들 상기군도 튕겨나와 10m떨어진 밭고랑에 떨어져 중상을입고 店村에있는 문경종합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이날하오5시께 숨졌다.

평소 명랑하고 적극적인성격의 조씨는 소아마비로 불구가된 남편 尹종원씨(36)와 어린3남매와함께 날품팔이로 근근이 생계를 꾸려왔었다.

사고건널목은 50가구의 마을을 가로지르는 경부선의 4종 건널목으로 간수나 차단기가없어 사고의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곳이다.

숨진 조씨는 이날 어린이날을맞아 큰딸 옥희양(6)과 둘째딸 은희양(4)에게 선물로줄 양말을사가지고 오던중 正根군(3)이 건널목에서 놀고있는 것을 발견, 임신9개월의 무거운 몸으로 아들까지 등에업고뛰어들다 이같은 변을당했다.

조씨의남편 윤씨는 『몸도 건강치 못한 나를 끔찍이 사랑했으며 79세의 시어머니도 잘존경해왔다』고 말하고『이 건널목에서 다시는 이같은사고가없도록 하기위해 간수로근무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尹교통등 弔慰金

한편 조씨의 장한 죽음을 듣고 尹子重교통부장관이 1백만원, 安昌和철도청장 50만원, 경북지사 10만원, 尙州군수10만원등 2백여만원의 성금이 답지하는등 각계에서온정의 손길이 뻗치고있으며 이날교통부장관을 대리하여 조씨집에 내려온 정필조 대전지방철도청장은 조위금을 전달한후 윤씨가 건널목 간수로 일하겠다는 뜻을 전해듣고 철도공무원이 될수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자전거타던 형제 死傷

커브길 直行버스에

또 이날하오1시30분께 忠北堤原郡鳳陽面新里앞 급커브길에서 충북5아1604호 직행버스(운전사 吳재환·30)가 자전거를 함께 타고가던 朴한복씨(42·堤川시永泉2동)의 2남 영조군(9·남당국교3년)과 3남 윤수군(6)등 형제를 치어 영조군은 그자리에서숨지고 동생 윤수군은 중상을 입고 原州기독병원에 입원가료중이다.

이날상오9시50분께 忠南舒川郡舒川邑郡司里앞국도에서 이마을의 朴成實씨(33)의 장남 泰俱군(5)이 충남7아5058호트럭(운전사 金炳德·24)에 치여 그자리에서 숨졌다.

이날상오11시께 釜山市北區鳴旨洞1165앞길에서 이마을에 사는 전은하양(3)이 경남5가1700호 관광버스(운전사 金見홍·42)에 치여 그자리에서 숨졌다.

버스·트럭정면衝突

1명죽고 54명다쳐

5일상오10시30분께 경기高陽郡 神道邑 紙杻2里3의130 예관동원옆 국도에서 대성여객소속 경기5아 5829호 마이크로 버스(운전사 崔광신·40)가 중앙선을 침범, 마주오던 서울7자 8217호 1톤 트럭(운전사 조경근·35)과 충돌, 버스에 탔던 최남순씨(45·여·경기楊州郡長興面三上里296)가 그자리에서 숨지고 강영애씨(30·여·서울恩平區津寬內洞14의6)등 54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날 사고는 日迎에서 서울로오던 마이크로버스가 커브길을돌면서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에서 달려오던 트럭을 받아 일어났는데 사고후 마이크로버스와 트럭은 1m아래 개울에 처박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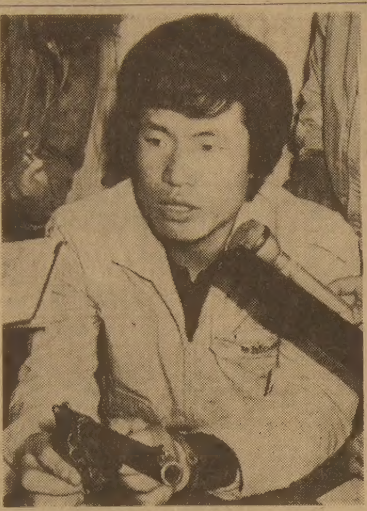
사고를당한 마이크로버스에는 결혼식에 참석하기위해 서울로 가던 일가족 10여명등이 타고 있었으며 트럭에는 서울恩平區津寬內洞 배승은교회신도 20여명이 어린이날을 맞아 트럭적재함에 타고 日迎으로 놀러가던길이었다.【聯合】

히말라야 닐기리峰 登頂

한국 登攀隊員 1명조난

히말라야의 닐기리峰(해발6,940m)을 등정하고 하산하던 養正OB 등반팀의 沈相敦대원(28·서울西大門區南加佐洞5의267)이 발목부상과 식량부족으로 조난, 네팔당국이 헬리콥터로 구조중이라고 6일 외무부가 밝혔다.

외무부에 접수된 현지보고에 의하면 지난해 11월 등반길에 오른 3명의 養正OB 등반대원들은 4월28일 닐기리峰정상에 오른후 하산도중 지난3일 캠프3에서 식량부족과 沈대원 발목부상으로조난중인것을 부근을 등반중이던 우리나라 연대산악회소속 안창렬대장이 발견하고 카트만두공항에 무전으로 연락해 현지 대사관에서 軍헬리콥터로 식량과 安대장및셰르퍼1명을 급파, 구조토록 했다는 것이다.



◇바로 이青年 범행이틀만에 검거된 서울江南지역 연쇄총기강도 사건의 범인蔡敬默。

「江南강도」 羅州서 잡았다

그날밤 호텔서 1泊

銃器는 장난감拳銃

서울江南區 論峴洞 총기연쇄강도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은 5일 하오9시30분께 전남羅州郡 南平面 水院里에서 이사건의 범인 蔡敬默(21·절도전과1범·전남 光州市 雙林洞984의33)을 검거, 범행일체를 자백받고 서울로압송했다.

경찰은 蔡가 범행에 사용한 총기는 플래스틱제 장난감권총이었고 단독범행이라고 밝혔는데 2인조로 본것은 蔡가 도주할때 외사촌 동생(19)을 차에 태워 2인조로 혼동한것이라고밝혔다.

경찰에서 蔡는 지난4월25일에 결혼한 누나(25)의결혼비용으로 진빚 1백만원을 갚기위해 범행했다고 자백했다. 蔡는 범행후 崇仁洞서울시외전화국옆 골목에 차를버리고 택시편으로 武橋洞 스타다스트호텔에 투숙, 다음날인 4일 상오8시 호텔을 나와 사촌동생과 헤어진뒤 광장시장에서 옷을 사서 갈아입고 龍山區新界洞 고종사촌집에 옷과 총이든 가방을 맡긴뒤 고속버스편으로 光州로 내려갔다.

蔡는 光州에서 애인金모양(22)과 여관에서 하룻밤을 지내고 5일 하오9시30분께 평소 누나로 사귀어온 다방마담 李모씨(32)를 만나러 羅州로 가던길에 검거됐다.

犯人검거 功세운 경관3명에 特進

한편 경찰은 범인검거에공을세운 李秉九경장、洪性樂순경(47) 李禹昇순경(44)등 3명에대해 1계급특진을 상신했다.

輪禍戰警에 金一封

全大統領위로

全斗煥대통령은 6일 연쇄총기강도사건으로 비상검문중 고속승용차에 치여 순직한 서울시경기동대 金龍秀수경(23)의 가족과 중상을 입은 吳福柱일경(22)에게 금일봉을 전달 위로하고 지난3일하오 불량배에게 흉기로찔린 新老遊山파출소장 朴義浩경사(48)와 전경대원 2명 방범대원 1명에게도 각각 위로금을 전달했다.

非常근무중 轢死

金수경 機動隊葬

서울江南區三成洞 청남교에서 연쇄권총강도범 검거를 위해 비상근무중 과속차량에 치여 순직한 서울시경제1기동대소속 金龍秀수경(23)의 영결식이 6일 상오11시 서울시경기동대장(葬)으로 엄수됐다. 金수경은 국립묘지에 안장, 옥조근정훈장이 추서됐다.

"히로뽕" 4명檢擧

在日동포와 密搬出기도

麗水세관은 6일 히로뽕10억원어치(10kg)를 일본에밀반출하려던 윤순중씨(33·해운업·전남麗水市鳳山洞203) 등 4명을 관세법위반혐의로 검거하고 이들에게 히로뽕운반을 부탁한 재일동포 2명을 같은혐의로수배했다.

세관에의하면 윤씨는 지난 2월초 김태석씨(33·부산中區)로부터 구입한 히로뽕5kg과 재일동포 최명남씨(41·일본 시모노세끼市)로 부터 운반을 부탁받은 5kg등 10kg을 대일화물선 제6안영호 선장 김종렬씨(38·麗水市蓮燈洞603)를 통해 밀반출하려 했다는것.

세관은 또 재일교포 이택종씨(59)등 2명이 한국에 왕래하면서 이들의 범행을 조종한 사실을 밝히고 이들의 행방을 쫓고있다.

경찰서 保護室서

30代 焚身자살

【釜山】6일 상오 5시30분께 부산진경찰서 형사피의자 보호실안에서 절도용의자 趙容達씨(36·절도전과 5범·釜山鎭區 凡田洞77)가 담요에 석냥불을붙여 분신자살했다. 趙씨는 이날 보호실안에 있는 화장실에 가면서 담요를 몸에감고 들어갔었다는것.【聯合】

李順子여사 仁川에

유아원 3곳을訪問

【仁川】대통령영부인 李順子여사는 6일상오 仁川市北區 連喜洞의 연희새마을유아원과 南區 朱安洞의 중앙새마을유아원, 南區 關石洞의 간석새마을유아원을 차례로 방문,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원아들에게 원아복과 학용품등을 선물했다.

2人組 식칼强盜

大邱서 金品털어

【大邱】6일 상오 3시30분께 大邱市壽城區 晩村1洞425 이의우씨(40) 집에 20대청년 2명이 침입, 잠자던 일가족 4명을 과도로 위협하고 현금13만원과 황금행운의 열쇠 8돈쭝짜리 1개등 모두 2백만원상당의 금품을 털어달아났다.

이씨에 따르면 범인은 이날밤 담을 넘어 침입,부엌에 있던 식도를 갖고 안방에들어와 플래시를 비추며 잠자던 일가족 4명을 깨워 이불로 덮어 씌운뒤 장롱속을 뒤져 현금과 손목시계 2개 황금등 각종 반지 5개 황금목걸이 1개등 2백만원상당의 금품을 털어 달아났다는 것이다.【聯合】

어제 成年의날

6일은 제10회 성년의날. 이날 정부 각부처및 지방자치단체,기업체·대학·사회단체등에서는 올해 만20세가되는 성년자들을위한 각종축하행사를 갖고 이들에게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짊어진 성인으로서의 자부심과 책임을 갖도록 격려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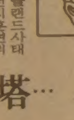
금년에 성인이 되는 사람은 62년1월1일~12월31일 사이에 출생한 남녀로 전국에서 92만1천7백29명(남자47만7천5백36명·여자44만4천1백93명)이다.

戰爭과 배구

아르헨代表팀 코치 孫永完씨

코트의 司令塔… 스포츠 中立선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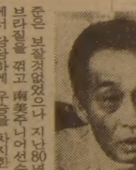
전지훈련차 남자배구팀을 이끌고 서울에왔던 아르헨티나 대표팀 코치 孫永完감독(43·사진)은 체한중 감회가 남 달랐다. 지난달 22일 英國과 아르헨티나간에 포클랜드분쟁로 戰雲이 한창 무르익어갈때 내한했고 경기가 진행되는 도중 開戰의 소식을 들은것. 중간에낀 제3국인이기 때문에 가져야하는 야릇한 「인간적인 갈등」을 그는 느껴야만했다고 말한다. 『英國은6·25때 우리나라를 도와준 전통적인 우방국이 아닙니까。또 아르헨티나는 현재 내가 몸을 담고있는 나라구요』



우리나라에 머물면서 치룬 친선경기는 모두 5차례。포클랜드사태가 더욱 악화돼갈때도 전지훈련의 일정은 변함이 없이 강행군됐다。팀안에는 또 유일한 현역군인인 위고·네스또르·끈떼선수(19·신장192㎝)도 포함돼있어 선수들은전쟁으로 치닫는 고국소식에 마음을 조리고있었다。

TV뉴스시간에 포클랜드사태 보도가 나올때마다 선수들은 孫감독에게 침통한표정으로 통역을요구했다가 이내 화제를 돌려 마음의안정과 명랑함을 되찾곤했다。낙천적인 南美人 특유의 기질이 유감없이 발휘됐기때문이랄까。아르헨티나 배구선수들의 이러한 자세는 기질탓만은 아닌것같다。

『우리는 배구만 열심히 하면 된다。오는10월 홈·코트에서열릴 제10회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좋은성적만 내면 되니까요』전쟁과 운동경기를 냉정하게 구분하는 분업의식이 철저하게 깔려있기때문이라고 孫감독은 전했다。지난 9회대회에서 22위에 그쳤으나 이번에는 4위를 목표로 맹렬하게 연습하고 있는데 이것은 황당무계한 계획만도 아니라는것。



지난75년 孫감독이 아르헨티나배구팀 감독으로 들어갔을때 배구수준은 보잘것없었으나 지난80년에는 브라질을 꺾고 南美주니어선수권전에서 당당하게 우승을 차지한 실적을 세웠기 때문이다。

이승전보는 축구만아는 아르헨티나에 배구붐을 몰고온는데 성공했다。

中共등과같은 공산국가로의 전지훈련이 잦아 가족중에서 자신 혼자만 아르헨티나에 귀화했다는 孫감독은 포클랜드전쟁의 승패와는 아랑곳없이 『나는 배구선수들이나 열심히 지도하렵니다』고 스포츠인으로서의 중립선언을 되풀이했다。【金仁奎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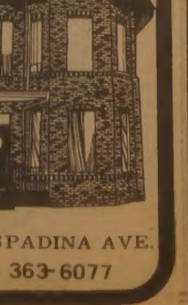
결혼예물, 보석 및 시계…
미도파 보석부
다이아몬드 에메랄드 루비 사파이어 진주 오팔
536-1692

운전교습
SOUTHERN ONTARIO DRIVING SCHOOL SPECIAL
10시간의 개인운전교습 집으로나 사무실로 모시러갑니다.
ONLY $129.00
무료신청서, 무료핸드북, 무료필기시험에 필요한것, 한번 와 보십시요. ※조금의 영어가 필요함.
월—금 오전10시—오후5시
2489 BLOOR ST. W. SUT210
(BLOOR & JANE 써브웨이)
766—4441, 766—4644

KAWAI 피아노
●KAWAI 피아노는 세계에서 가장큰 회사중의 하나입니다.
●KAWAI 피아노는 일본 정부에서 그 품질을 보증하는 우수한 피아노 입니다.
●KAWAI 피아노는 캐나다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읍니다.
●HILLCREST MALL ☎: 883—9407
●MARKHAM PLACE ☎: 881—8211
대표 : 윤호섭
세일즈 매니저 : 알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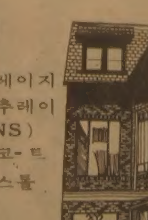
佛光寺 법회안내
장 소 : 불 광 사
지도법사 : 석 광 옥 스님
법회안내 : 일요일 오전11시~12시(일반법회)
(청년회 교리연구)
일요일 오후7시~9시(좌선 : 참선지도)
주 소 : 288 Hownslow Ave. Willowdale, Ont. (Yonge & Finch)
전 화 : 223—9152

털코-트 원하십니까?
Paul Magder FURS
※밍크외 각종 털제품 3000점 이상을 준비하고 있읍니다
※한국말을 하는 점원이 여러분을 도와 드립니다
※스파다이나 208번지에는 지점이 있읍니다
※언제나 저렴한 가격으로 여러분 을 모시고 있읍니다
신품 $150부터
중고 $99부터
※보험 세탁 스토레이지 (및 보관) 수리 추레이드인(TRADE-INS)
※밍크외 각종 털코-트 쟈켈 모자 칼라 스톨 남성모피
영업시간
12:00~5:00 일요일
9:00~6:00 월, 화, 수, 토
9:00~9:00 목, 금
MRS. 전
202+208 SPADINA AVE.
☎ : 363-6077



거구장
결혼 회갑 생일잔치 동창회및 각종 피로연 예약 환영
영업시간 : 월~수 오전11시~새벽1시
목 금 토 오전11시~새벽2시
일 : 오후2시~새벽1시
5 BETHRIDGE RD. ETOBICOKE
☎ : 742—1618

Grant Brown
쎄일즈·매스터
이 한 구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J2000. 이한구
1575 WESTON RD. B) 247—7161
WESTON, ONT. R) 977—2731



JAGUAR 종합보험
※저렴한 염가로 여러분께 봉사함.
※자동차보험.
※비지네스 보험.
※집보험.
※생명, 상해보험, 등
◎영어를 할수있는 한국학생 (파타임) 구합니다.
1033 PAPE AVE.
전화 : 425—5656

한국女子농구 長身化시급

ABC대회決算 中共과의 苦戰 거울삼아야

"速攻·장거리슛依存 탈피"

「技術」이「힘」에 눌릴수도 제2·제3 朴贊淑 발굴했으면…"

이번 ABC는 한국여자농구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과시한 무대였고 中共세가 맹위를 떨친 대회였다. 한국의 우승은 값진것이었다.

대회최종일 日本과의 경기에서 보여준 한국의 실력은 믿음직 했다. 특히 재일동포들에게 오랜만에 흐뭇한 선물을 안겨주었다. 『오늘이야 말로 한국여자농구의 표본을 보여주었다』는 申東坡감독의 말 그대로였다. 스포츠외교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실감할수 있었다.

韓·中·日 3국의 6강리그 성적을 보면 한국은 평균 126·4득점, 골득실차가 평균 플러스 81·2점, 中共은 124·8점에 플러스 85점, 日本은 112득점, 득실차 플러스 65·8점으로 한국과 中共의 우열을 가리기 힘들다. 中共세는 무서웠다. 한국의 컨디션이 최악이기도 했지만 中共의 「힘의농구」가 한국의 기술을 꺾을 수 있다는것을 보여주었다.

홍콩대회이후 1년7개월동안에 선수의 반이상(7명)을 새로 뽑았고 신진 7명중 4명이 베스트5로 뛰고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하겠다. 2m이상의 인간장대후보도 5명이나 된다고 한다.

당장 오는 11월 뉴델리에서 열리는 제9회 아시아경기대회에서 한국이 中共을 이긴다는 보장이 없다. 하기야 이번에 고전한 경험을 거울삼아 페이스를 살린다면 승산이 많다고 봐야겠지만 장기적인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있다. 2、3의 朴贊淑을 빨리 발굴해내야 한다. 중거리 슛과 속공에만 기댈때는 지났다.

…을 자랑하는 朴鎭淑(선경)이 베스트5에 들어섰다는점이 큰 수확이다.

中共세는 코트밖에서도 위협적이다. 이번에 참가한 9개국중 中共을 포함해 5개국이 中共편. 또 아직까지는 아시아농구연맹(ABC)의 센터는 한국이다. 회장(李秉禧)과 사무총장(趙東幸)직을 한국에서 갖고있다. 심판배정등 행정적인 면에서 유리한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같은 유리한 입장이 언제어떻게 변할지 모른다. 83년도 총회에선 회장이 새로 선출될 전망이며 회장이 바뀌면 사무총장도 바뀌는게 관례다. 日本、필리핀、홍콩과함께 中共이 회장자리를 노리고있다. 스포츠외교면에서 강력한 대책이 강구돼야할것이다. 【東京=李基洪특파원】

한국、日도격파…3連覇

朴鎭淑 野投 92%성공…世界여자농구 出戰權

86대60

오늘 選手團개선

【東京=李基洪특파원】 한국여자농구가 마침내 아시아 여자농구선수권대회(ABC) 3連覇를 이룩하면서 통산 7번째 정상에 올랐다.

한국은 5일 東京 요요기(代代木) 체육관서 폐막된 제9회 아시아 여자농구선수권대회서 12명 전원을 기용하는 여유를 보이면서 日本을 86-60으로 완파하고 5전전승으로 우승했다.

한국은 리바운드에서 41-24, 어시스트에서 32-18로 압도적우세를 보였으며 對中共전서 결승골을 터뜨렸던 朴鎭淑은 92%의 야투성공률을 기록, 29분36초동안에 26점을 뽑았다.

日本은 구마가이 20점, 오다니가 18점을넣었으나 기량이 한국에 미치지못해 경기초반 4차례의 동점을이루는데 그쳤다.

中共은 말레이지아를 117-39로 대파하고 4승1패로 준우승을 차지, 83년 브라질서 열리는 세계여자농구선수권대회에 한국과함께 출전자격을 얻었다.

한국의 朴贊淑(1m90)은 최우수선수로 뽑혔고 포워드 朴鎭淑과 함께 베스트5에 선정되었다. 가드 朴良桂는 어시스트상(평균13·67개)을 받았다.

이번대회 베스트5는 朴贊淑、朴鎭淑을 비롯 中共의 宋曉波、修麗娟、日本의 오다니(大谷).

한국선수단은 7일하오 7시반 KAL편으로金浦착 개선한다.

한국여자대표팀은 귀국후 金浦공항서 환영식에 참석한후 공항으로부터 대한체육회앞까지 오픈·카에 분승, 퍼레이드를 펼친다.

◇최종일전적

한 국 86 (39-32 47-28) 60 일 본

중 공 172 (89-18 83-21) 39 말레이지아

마카오 79 (44-26 35-42) 68 싱가포르

▲동종합순위=①한국 5승 ②중공 4승1패 ③일본 3승2패 ④마카오 2승3패 ⑤싱가포르 1승4패 ⑥말레이지아 5패

◇개인상

▲최우수=朴贊淑(한국) ▲득점=오다니(일본) 평균19·83점 ▲리바운드=陸志(마카오) 평균15·67개 ▲어시스트=朴良桂(한국) 평균13·67개 ▲감투=柳青(중공) ▲미기=王玲珠(싱가포르) ▲미스ABC=구르·신·란(인도)

◇人間컴퓨터 컴퓨터·슈터 朴鎭淑(11번). 中共과의 경기서 결승골을 넣었던 朴은 5일 對日本전서도 13개의 슛중12개를 깨끗하게 성공시켜 신들린듯한 적중률을 보였다. 키 1m77, 22살의 朴은 80년5월 불가리아 프레올림픽때 처음 대표로 뽑혔다. 【東京=李東虎특파원】

◇한국팀 주장 洪惠蘭이 우승트로피를 높이 쳐들고 있다. 【東京=李東虎특파원】

全대통령、祝電격려

全斗煥 대통령은 5일하오 東京에서 열린 제9회아시아여자농구선수권대회에서 3連覇한 한국여자농구대표팀에게 축전을보내 치하·격려했다.

"리바운드·守備등 보강 뉴델리 亞洲競技 대비"

申東坡감독 外信記者회견

다음은 3連覇를 이룩한 申東坡감독이 외신기자들과의 회견 내용을 간추린것이다. 【편집자註】

◇申東坡감독

—우승소감은?

▲과거 어느때보다 기쁘다. 3連覇가 처음이기도 하고 中共에 역전승해 기분좋다. 요요기(代代木) 체육관은 내가 선수생활을 했을때 食이 잘받아 좋아한 코트였고 이코트에서 우승, 더욱 감격적이었다.

—한국농구는 중·장거리 슛이 훌륭한데 비결이 있는가.

▲비결은 없다. 전통적으로 슛감각이 좋고 연습때 슈팅을 중요시한다. 하루에 최소한 3백 내지 5백개씩 쏜다. 이보다 더 던지는 선수도 있다.

—日本이 한국을 쫓아가려면 어떻게 해야되며 얼마나 걸린다고 보는가.

▲그것은 모르겠다. 공식적이고 日本농구는 단조로운것같다. 패턴자체가 풍부하지 못하다. 공격력보다 수비가 좋다. 순발력과 슛감각은 좋다. 국민학교때부터 길러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中共과 막상막하의 대결이 예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렇다. 계속 고비가 펼쳐질 것이다. 당장 아시아경기대회에서 만나게되는데 힘든상대다. 그러나 최악의 컨디션에서도 이번에 이겼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뉴델리 아시아경기대회를 위해서 어떤 대책을 구상중인가.

▲우선 리바운드와 수비에 전력하겠다. 리바운드열세를 절실하게 느꼈다.

—장기적으로 한국여자농구가 해야할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장신화가 가장 시급하다. 아시아경기대회 개편후 대표팀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1m85내지 1m90의 장신유망주들을 빨리 대표로 선발해 훈련을 시켜야한다고 생각한다.

대통령盃 고교야구

釜山、慶北꺾고 榮冠

투수金宗奭、逆轉 3점홈런 6-4

왼손잡이 에이스 金宗奭의 투·타에걸친 수훈으로 釜山高가 79년 청룡기대회우승이후 3년만에 다시 전국고교야구정상에 올라섰다. 5일 폐막된 제16회 대통령배전국고교야구대회결승전에서 釜山高는 5번 투수 金宗奭의 6회초 역전3점홈런과 1번 黃允泰의 9회초 결승타로강적 慶北高를 6-4로 격파하고 우승했다. 金宗奭은 慶北高의 언더·드로 文炳權과 마운드서 대결, 안타수6-8、四死球4-3、三振9-1、실점4-6(자책3-5)으로 우세를 보이며 釜山高의 승리를 지켰다.

釜山高의 대통령盃 제패는 이번 처음. 11년전 5회대회결승서 釜山高는 南宇植의慶北高에 1-0으로 졌었다.

◇최종일 결승전적

부산고	000	103	002	6
경북고	100	200	001	4

▲홈런=金宗奭(6회·3점·부산)

◇개인상

▲최우수=金宗奭(부산투수) ▲우수투수=金宗奭 ▲감투=柳仲逸(경북유격수) ▲미기▲徐明錄(충암3루수) ▲수훈=黃允泰(경북중견수) ▲타격=金宗奭 18타수9안타(0·500) ②金容熹(경북좌익수) 12타수6안타(0·500) ③金憲洙(부산1루수) 15타수7안타(0·467) ▲최다안타=黃允泰10개 ▲최다타점=金宗奭8개 ▲도루=盧載龍(세광유격수) 6개 ▲감독=曺斗腹(부산고감독) ▲공로=洪金衛(부산고교장)

스타 최우수 選手賞등 4冠王 왼손잡이 釜山高 金宗奭

5게임完投 奪三振 36개…"投手나 打者나"고민

최우수 선수상, 우수투수상, 타격상、타점상. 동문들의 열광적인 환호에 뒤덮인 釜山高 왼손잡이 에이스 金宗奭(18·사진)에게는 5일이 가장 행복하고도 곤혹스러운 날이었다.

5게임을 완투하여 쟁취한 우승. 1-3의 열세에서 날린 역전3점 홈런으로 우승을 차지한후 金宗奭은 새로운 회의에 빠졌다.

『과연 나는 대성할만한 투수인가. 더 늦기전에 타격에만 전념해야 하는게 아닐까』

평범한 스피드의 투구로 그는 5게임에서 32안타 13四死球15실점 10자책점을 허용했다. 게임당 평균 6안타、四死球2·6개、실점3、자책2점으로 방어율 1·95. 그렇게 빼어나지도、뒤떨어지지도 않은 수수한 성적이다.

그러나 수많은 팬들、특히 동문들로부터 화금의원팔楊相汶의 후계자로 지목받고있는 金宗奭의 매력은 핀치에 몰릴수록 대담해지는 승부정신、상대타자를 KO시키는 날카로운 인코스직구에 있다. 慶北高와의 결승전 1회말 첫타자를 三振으로 잡은 金宗奭은 9회말 마지막 위기를 2개의 三振으로 잡아내는등 5게임에서 모두 36개의 奪三振을기록했다.

그런가하면 金은 자신의 실투로 진빛을 타력으로커버, 5게임에서 18타수 9안타 타율 5할의 강타력을 보였으며 8개의 타점을 올렸다.

釜山 大淵국민교서 야구를 시작, 草梁中시절 소년체전서 우승하며 투수로각광받던 金은 釜山高와 慶南高의 스카웃 줄다리기에 휘말린후 고교 1·2년을 발목부상으로 우울하게 보냈다.

『스피드를 붙여 대형투수로 키워야한다』『아니다. 방망이를 살려 대타자로만 들어야한다』

182cm、75kg의 듬직한 체구의 金宗奭은 『대학에 가서 더 열심히 야구공부를 해보겠다』고 희망을 밝힌다. 【方錫晌기자】

國際 주니어테니스 金德載 準準決진출

【東京5日AP=聯】도오꾜에서 열리고있는 국제주니어테니스선수권대회에 출전중인 金德載는 5일 日本의 무라까미·다께시를 2대1로 누르고 준준결승전에 진출했다.

그러나 金炳昊와 禹美淑은 브라질의 호세·바세르칼라르와 蘇聯의 율리아·살니코바에게 각각 2-0으로 패배했다.

洋弓 한국新 3개

評價戰 李龍浩·黃淑珠·金珍浩

제1회 아시아·오세아니아양궁선수권대회(日本·7월) 파견 대표 선수평가전이 6일 泰陵선수촌에서 열려 한국신기록3개가 수립되었다. 李龍浩(경남대)는 남자 70m싱글서 79년 尹聖哲이세웠던 한국기록 3백24점보다 7점 많은 3백31점의 호성적으로 한국 신기록을 수립했다.

黃淑珠(계명대)는 여자 50m 싱글에서 종전기록보다 2점 많은 3백24점으로 한국신기록을 세웠다. 金珍浩(한체대)는 여자 30m 싱글서 3백51점으로 한국신기록(종전3백49점)을 세웠다.

◇첫날전적

▲90m남자싱글=①엄선기(삼익악기)292 ②김영운(전남대)285 ③임인택(전남대)281 ▲동70m=①이용호(경남대)331(한국신·종전324) ②박만수(전남대)318 ③김영운317 ▲동50m=①김용호316 ②임인택314 ③이재형(한체대)313 ▲여자70m싱글=①김진호(한체대)316 ②양경순(성모여고)312 ③박영숙(한체대)303 ▲동60m=①김진호334 ②김미영(인천시청)326 ③양경순324 ▲동50m=①황숙주(계명대)324(한국신·종전322) ②김진호320 ③박영숙318

킹스컵蹴球 한국、말聯을 大破 5대0으로

【방콕5日=聯】한국대표축구팀은 5일밤 방콕국립경기장에서 열린 킹스컵축구대회 B조예선2차전에서 말레이지아를 5-0으로 대파, 2전2승을 기록했다.

대표팀은 전반11분 丁海遠이 첫득점을 올린후 25분 邊炳柱가, 44분에는 崔淳鎬가 헤딩슛으로 세번째 골을 뽑았다.

한국은 후반들어서도 일방적인 경기를 펼쳐 후반15분 李康助가 왼발강슛으로 득점을 올리고 25분에 李泰昊가 또 한골을 추가했다.

한국은 8일밤 인도네시아와 3번째 경기를 벌인다.

◇전적

한 국 5 (3-0 2-0) 0 말레이지아

權彩吾 世界아마복싱 2회전에

【뮌헨5日=聯】한국의 權彩吾는6일상오2시(한국시간) 이곳 올림픽홀에서 벌어진제3회 세계아마복싱 선수권대회 2일째 플라이급 1회전경기에서 도미니카의 알바레스·프란시스코를 3회2분11초만에 RSC로 제압, 2회전에 진출했다.

權은 이날 신장이 월등한 프란시스코를 맞아 초반한때 고전했으나 2회전부터날카로운 잽과 스트레이트로주도권을 잡아 승기를 잡고 3회전서 강한 레프트훅을 터뜨려 RSC승을 장식했다.

프로야구

三星、OB꺾고 先頭

홈런 2개씩交換 6-3

三美는 롯데에 16대10勝利

三星라이온즈는 5일 淸州구장에서 홈팀 OB베어스와 3일만에 재대결, 홈런2개씩을 주고 받는 타격전끝에 7번 朴貞煥의 프로야구첫연타석 홈런에 힘입어 6-3으로 승리, 11승6패로 OB베어스에게 빼앗겼던 선두를 3일만에 되찾았다.

三星의 7번 朴貞煥은 2회초 2점、4회초솔로등 프로야구 첫 연타석 홈런을 날리며 기세를 올렸고 OB는 1회말 4번金宇烈이 자신의 6호인 투런、3회말 1번楊世鍾이 솔로호머를 날려 홈런대결을 벌였다.

三星은 7회초 8번金漢根의 좌전안타、1번孫祥得의 좌전안타로 1점을 올려 팽팽한 균형을 깨뜨리더니 敵失과 4번 李萬洙의 적시타로 2점을 추가했다.

한편 이날 三美슈퍼·스타즈는 春川경기서 4회말 4번梁承琯의 2점홈런등 전원안타(22안타)로 盧相守·李潤燮(4회)崔玉圭(5회)·金德烈(8회)의 롯데마운드를 난타, 16-10으로 대승했다. 이로써 금년도 淸州및春川구장에서의 프로야구 일정은 모두 끝났다.

◇6일전적

▲청주

삼 성	020	100	300	6
O B	201	000	000	3

▲홈런=金宇烈(1회 2점·OB) 楊世鍾(3회·OB) 朴貞煥(2회 2점·4회·삼성)

▲춘천

롯 데	200	003	410	10
삼 미	202	504	210	16

▲홈런=金貞洙(1회2점·롯데) 金用熙(6회 3점·롯데) 梁承琯(4회 2점·삼미)

◇전기 중간순위 <5일 현재>

팀	승	패	승률
①삼 성	11	6	·647
②O B	10	6	·625
③롯 데	7	7	·500
④해 태	7	8	·467
⑤MBC	7	9	·438
⑥삼 미	5	11	·313

"88서울올림픽 卓球 새로追加"

에반스會長 밝혀

◇에반스會長

『88년 서울 올림픽종목에는 탁구 단식외에 복식이 새로 추가 됩니다』

崔元碩 대한탁구협회장 초청으로 지난1일 한국을방문한 국제 탁구연맹(ITTF) 로이·에반스회장(75)이 4일 신라호텔기자회견서 풀어놓은 보따리에는 대단한것이 없어보였다.

여러가지 어려운 질문들을 그는 35년간의 ITTF생활에서 터득한 화술과 임기응변으로 받아넘겼다.

『올림픽의 단체전 채택고집은 개인경기를 중시하는 IOC정신에 따라 배제돼야한다. 한국의 아시아 탁구연합(ATTU) 가입문제는 ITTF의 임무이기도 하지만 ATTU헌장 자체문제로 진전이 없었다. 서울오픈에 많은 회원국이 참가하기를 바라지만 만약 내가 서울오픈 참가를 권한다면 다른나라의 오픈대회 참가도 권해야하지 않겠느냐』

1907년 英國태생인 에반스씨는 47년 ITTF자문위원으로 출발, 사무총장 신규가입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고 67년부터 현재까지 15년간 회장으로 일하고있다.

ITTF이사겸 홍보위원장인 부인과 함께 방한한 에반스씨는 盧泰愚내무부장관、李源京체육부장관、金溶植서울올림픽조직위원장、曺相鎬체육회장、崔元碩탁구협회장등과 만나 의견을 나누었다.

放送街소식

日이 잘사는비결 KBS 11일부터

KBS는 해외기획취재 제3탄으로 「日本이 잘사는 비결」을 11일부터 4일간에걸쳐 1TV를 통해 방영한다.

두차례에 걸친 석유파동으로 세계 강대국들이 불황에 시달리는데도 日本만은 강력한 경쟁력으로 세계시장을 석권해왔다. 이같은 일본경제의 비결을 「로보트의 충격」「勞使는 한 집안」「1억인의 손끝」「세계제1의 생산성」「부자나라의 가난한 사람들」로 나누어 분석, 진단한다.

82서울국제歌謠祭 국내參加3曲결정

오는29일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될 82서울국제가요제 본선대회 국내참가곡 3곡이 결정됐다. 경연한 18곡중 1·2차 심사를 거쳐 선정된 3곡은 다음과 같다.

▲빨간 장미의 사랑([illegible]작곡·林鍾任노래) ▲지나간 시절의 연가(李範熙작곡·全永祿노래) ▲세상은 요지경(金秀析작곡·金泰華와 검은나비 노래)

趙英男 특집쇼放映 KBS 내일백분쇼

KBS제1TV는 8일 「백분쇼」시간에 최근 완전귀국한 가수 趙英男의 특집쇼를 방영한다. 趙英男이 지휘하는 합창단 2백명이 함께 출연, 그동안의 히트곡과 신곡을 들려줄 예정.

조규혁 종합보험
● 자동차보험
● 화재보험
● 상점보험
● 생명보험
233-6236
745-8236

한국일보 533·2361

컴퓨터 사진식자 서비스안내

● 각종 간행물
● 도서출판
● 신문제작
● 교회주보 등

종전의 사진식자기보다 10배 이상의 능률을 올릴수 있는 컴퓨터사진식자기는 여러분이 원하시는 바를 보다 신속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해 드릴수 있읍니다.

자세한 문의는 533-2361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일보 토론토지사

BLACK SEA
Fish
Wholesale Ltd.
각종 생선 소매·도매함
16 Osler St.
☎ : 762-7255, 7256
762-2700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한국안내광고

한국인의 도매상
한 인
연합상사
25-27 Rangemore Rd.
☎ : 251-6578

시설및 수리

"집수리 · 신건축"
건축 목공 각종 가게시설및 진열장
카운터 제작, 페인팅 타일
전화 : 669-5784 Mr. 심

"가게및 집수리 일체"
시설및 수리 (상하수도, 전기제품, 페인팅)
성심 성의껏 봉사해드리겠읍니다.
전화 : 425-8585 Mr. 김

KIM ELECTRIC LTD.
MET. LIC. E1018 전기시설 · 보수 · 경보장치 설치
FIRE ALARM 전화: 438-3795 김 영 호

KIMBO ELECTRIC CO.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 보수 · 가게신설 · 용량증설등 전기일 일절
전화: (B) 245-5544 (PAGING) 2790, (R) 255-2161 김 부 원

전기시설 · 보수
CANCO ELECTRIC CO. 각종 냉동기 에어콘
전화: 270-3118 오 현 구

FINE WOODWORK 목공소 상점시설및 주택개조
879 Westport Cr. Unit 3, Mississauga, Ont. 싸우나 설치, 진열장
전화: 676-1173, 769-9468 찬장등 가구제작

T. V. 출장 수리
전화: 431-0102 미스타 박

한국일보 안내광고를 이용하세요.
즉시 좋은 결과를 얻으실 것입니다.

식 당

CHOI'S RESTAURANT
메뉴: 초밥, 튀김덮밥, 모밀국수, 갈비, 불고기,
덴뿌라, 스끼야끼, 기타 ◉일요일 휴업
시간: 주중:낮12-밤12시까지, 목금: 낮12-밤1시까지
토: 낮4시30분-밤11시반
주소: 2432 Eglinton Av. E. Scarboro (at Kennedy)
전화: 759-8512 최 영 호

아 리 랑 식 당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영업시간 : 월~일요일까지=낮12시~새벽1시까지
716 BLOOR ST. W. TORONTO 전화: 532-2727

오리엔탈팔레스·뉴서울식당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코 리 아 하 우 스
666 BLOOR ST. W.
전화: 536-8666

거 구 장
5 BETHRIDGE RD. 전화: 742-1618

한 국 관 628 BLOOR ST. W. 전화: 536-0290, 531-0277
냉면, 곰탕, 갈비및 중화요리 전문.
OPEN 11 : 00AM~1 : 00AM 대소연 200석 완비

서 울 하 우 스
615 BLOOR ST. W.
전화: 532-0602

식 품 점

한 밭 식 품
◉ 미시사가지역 교민들께 편리.
◉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 일요일은 오후 4시~8시까지 OPEN
466 SOUTH SERVICE RD. MISSI.
전화: 274-5401

동 양 식 품
일주일 내내 영업, 일요일도 정상영업 합니다.
(화요일만 오후1시~10시까지) 많은 식품을 준비하고 있아오니 계속 이용해 주십시요. •배달도 합니다.
1662 JANE ST. WESTON ONT 전화: 248-5131

제 일 식 품(구 단풍식품)
7 Days Open(오전10시~오후10시까지)
배달합니다
뒤에 파킹 LOT 마련.
전화: 532-1054 (아리랑식당 옆)

삼 복 식 품 주 7일 영업, 배달합니다.
2437 FINCH AVE. W. WESTON
전화: 743-8270

서 울 식 품 ◉ 친절한 써비스, ◉ 저렴한 가격
367 PITFIELD RD.
전화: 291-8317

고 려 식 품 680 Bloor St. W. Tor.
주 7일영업(오전10시~오후11시까지)
배달가능, 각종서적및 월간잡지 전화:531-2242

악 기 점

피아노 수리, 조율, 재생, 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전화 : 636-1430(R), 783-6871(B)
주소 : 1178 EGLINTON AVE. W. 이 상 칠

SOO PIANO SERVICE (조율, 수리)
Simson's Mr. Music의 Representative
전화 : 222-4662 김 수 웅

양 장 점

센 터 의 상 실
숙녀복 · 파티드레스 · 웨딩드레스 · 단체주문환영
606 Bloor St. W. 전화 : 535-4441 디자이너 MR. 김

MIRAGE BOUTIQUE(구 코스모스숙녀복집)
각종 고급 숙녀복 취급. 704 Bloor St.W.
오전 11시~6시30분 전화 : 530-1870

액 자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32A REXDALE BLVD. REXDALE
전화 : 746-2120 조 혜 숙

에어콘·히팅·냉장고

PALMER'S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시설 · 판매 · 수리
전화 : 532-2880, 2889(B) 493-9945(R) 김 봉 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 · 판매 · 수리
정확한 진단 ·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 24 HOUR SERVICE —
전화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CENTURY
(냉동기 시설및 수리)
전화 : 221-5441 Mr. Lee

KIM 냉장고 · 에어콘
시설 · 수리 · 판매
전화 : 749-3178 김 진 환

여 행 사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전화 : 535-6004,
: 535-8801 최 동 주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전화 : 536-2155 김 창 범

제 일 여 행 사
649A BLOOR ST. W.
(김종조 종합보험 옆)
전화 : 535-2377 유 지 원, 신 용 목

북 미 여 행 사
376 QUEEN ST. E.
전화 : 368-9018,
: 366-0960(B) 임 태 호

화 랑

KIM'S ART GALLERY
각종 유화, 동양화 도매, 각종 Picture Frame
1286 Weston Rd. 전화 : 243-0233

운전학교

AGINCOURT DRIVING SCHOOL
스카브로 지역은 집에서 데려가고 집에까지 데려다 줍니다. 16년간의 경험으로서 특히 신경예민하신 분들과 연세 많으신분들께 성실 성의껏 지도해드립니다. 한번 수업에 Parking에 관한 전반적인 것을 배우실수 있으며 전문가로부터 운전에 관한 모든 필요한 지식을 배우시게 됩니다.
Call Ask Vlado, 291-8304 (오후 4:00-밤 11:00)

오행근운전학교
전화 : 423-3035

이삿짐및 운송

나 라 운 수
각종 운반및 이사짐, 피아노, 쿨러
전화 : 630-6602

인 벤 토 리

INVENTORY — 인벤토리 —
1) STORE 인수, 인계 INVENTORY
2) STORE 정기조사 INVENTORY
3) STORE 납세대비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전화: 259-5822,255-8301(B) 252-2963(R) Mr. 오

INVENTORY — 인벤토리 —
주야불문 (공휴일 무관)
전화 : 532-7741(B), 536-6250(R) 호 세 환

인 쇄

칠성인쇄소, 칠성광고 대표 : 이 인 용
1559A Eglinton W. TOR. ONT. M6E 2G9
전화 : (B) 789-7351, 789-7352

스피디인쇄소
619 BLOOR ST. W.
전화 : 535-3520 곽 호 중

LEE'S 프린팅
최고의 품질, 저렴한 가격
2157A WESTON RD. WESTON 전화 : 244-2301

크로바인쇄소
3351 Lakeshore Blvd. W.
전화 : 251-9587(B) 252-7491(R) 위 진 남

광고문의 533-2361

비들기사진식자인쇄소
87 Apache Trail Willowdale, Ont.
전화 : 493-8894 윤 종 대

자동차수리

MASTER AUTO BODY
사고차량 24시간 토잉, 사고시 보험관계 처리
수리중 차대여, 페인팅 (Oven Bake Finish)
교포특별대우, 95 Portland St. Etobicoke.
전화: 255-2111(B), 828-5001(R) 전 기 덕

ANCHO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두꺼운 페인팅
▲토잉 써비스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전화: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ALLEN AUTO SERVICE
▲GENERAL AUTO SERVICE ▲TUNE-UP
▲BRAKE JOB ▲TIRE ▲TOWING SERVICE
▲ENGINE OVERHAUL ▲ELECTRIC PROBLEM
▲AUTOMATIC TRANSMISSION ▲OIL CHANGE
주소: 521 KEELE ST. TOR. 전화: 762-3247 정 용 태

O. K. AUTO BODY
자동차 사고 전문
138 SIXTEENTH ST. (New Toronto,)
전화: (B) 251-9889, (R) 242-4551 김 희 삼

자동차 출장수리 (오전및 주말)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전화: 749-9749 Mr. 박

CENTRAL AUTO SERVICE 길 창 세
▲Tune up ▲Safty Inspection Certify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532-3946

ROGERS GARAGE (자동차 수리일체)
20 Rogers Rd. 변 달 원
전화: 651-9324(B), 226-5430(R)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BLOOR & 키플링)
전화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CITY WIDE RADIATOR SERVICE 김 용 환
라지에타 — 개스탱크·히터·워터펌프 수리
전화 : 245-1978(B), 248-6032(R)

FIRST AUTO SERVICE
1521 QUEEN ST. W. 최 이 락, 김 한 호
전화: (B) 532-0200, (R) 533-2157

자동차 매매

GRANT BROWN
1575 Weston Rd.
전화 : 247-7161 이 한 구

MARVIN STARR
3132 Eglinton Av. E. Scarboro.
전화 : 264-2311 조 의 문

매매 부동산

복 덕 방 ROYAL TRUST CO.(로얄 트러스트)
곽 석 용 전화 : (B) 752-3111, (R) 298-2546

D.F.McALLISTER R.E.LTD. 김 시 성
투자전문(IC & I)
전화 : (B) 497-0600

이 대 환 부 동 산
전화 : 535-1251

이 훈 모 부 동 산
전화 : 225-1204

황 용 현 부 동 산
(주택매매, 사업체 일체)
전화 : (B) 449-8644~5, (R) 286-1548

ROYAL TRUST (유 복 영)
전화 : 762-8255 West 지역

CANADA PERMANENT (황 순 일)
전화 : 481-3443

A.E. LEPAGE (우 덕 이)
전화 : 741-9170

SINCERE REALTY INC.
David Chae (채 준 성)
전화:633-7892(R)497-8900(B)

장 의 사

장 의 사 (R.S.Kane Funeral Directors)
모든 장의관계 일체 취급
4812 Yonge St.E.(세파드 써브웨이) ☎ : 221-1159

카펫 · 카텐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텐·카페트·브라인드
2338 LAKESHORE BLVD. W. WINDOW SHADE
전화 : (B)252-4857 (R)252-6602 유 원 덕

카페트 크리닝: 카페트·소파·체어·자동차시트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전화 : 439-6277 Mr. 박

태 권 도

손명수 태권 · 합기도장 사범 : 손명수
2188 BLOOR ST. W. (At Runnymede 써브웨이)
전화 : 763-1155

임송학 태권도장
1963 WESTON RD. (1층)
전화 : 247-7577 (웨스톤 × 로렌스) 로브로앞

영정태권도장
1065 St. Clair Ave. W.
전화 : 652-0000 사범 : 정 영 수

완인태권도 完人跆拳道
교포 할인우대
이경태, 이현우 사범 직접책임지도
중앙도장 : 2281 YONGE ST. 전화 : 483-4002
동부도장 : 1865 LAWRENCE AVE. E. 전화: 759-2500

T V

아카데미 TV & STEREO CO.
SANSUI, BRAUN, ZENITH, TELEFUNKEN 등
◉ 특별대매출, ◉ 월부판매 알선
★ 동부 255 MORNINGSIDE AV. 282-2820
★ 서부 Finch West Mall(Finch & Weston) 745-5555

STEREO KING 전화 : 766-4770
◉ 고급 라디오, 전축 전문센타
◉ 전축 스테레오 수리전문
◉ 비데오 취급
2989 DUNDAS ST. W. (킬 × 던다스)

페인트 벽지(월페이퍼)

★봄맞이 집단장을 하시지 않으시렵니까?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기술로써 성심껏 모시겠읍니다
★전화상담도 환영합니다.전화:745-6792(Mr.우)

다년간의 경험으로 성심 성의껏 봉사해 드리겠읍니다.
전화문의도 받읍니다.
전화 : 746-6962 (Mr. Lee) 페인트·월페이퍼

학 교

씨알한국인학교 (교장 유희자)
전화 : 960-0074

Y어린이학교 (김창열)
전화 : 536-1166

한 방 원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온타리오 면허소유 함병섭 M.C.I.C. R.M.
◉Downtown Office : (416)537-6685 8am~6 : 30pm
621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Toronto
◉Willowdale Office : (416)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에서 Bayview근처)
VISA 또는 MASTER CHARGE 환영

안강용한약건재상
중국한의사 4명으로 정확한 진찰, 신속한 효과
보약제와 신경통약이 다량 수입되었읍니다.
교민들에게 특별 염가 제공코져 합니다.
전화문의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6일영업 아침10시~저녁8시 (수요일 휴업)
차이나타운내 (465 DUNDAS W.)
전화 : 596-8407, 596-7373 최 호 권

하르빈한약상사
20년간 한의사 경험(중국의사 자격증 소유)
20년간 하르빈한의대학교수
정확한 진단과 처방
한약으로 암환자를 치료
중국본토에서 한약 직수입
(사향, 경명, 주사, 우황, 진주, 웅담, 인삼, 녹용등)
643A BLOOR ST. W. (신용조합옆)
전화 : (B)536-6854, (R)531-7505 서 춘봉

보 광 한 약 방
30여년의 (부산) 임상경험을 토대로 교민여러분의 건강관리에 미력하나마 이바지하기 위해 친근한 상담역이 되고자 하오니 한약및 침구에 대한 격의 없는 상담을 바랍니다.
주소 : 92 Brantwood Drive (스카보로 제너랄병원근처)
전화 : 439-6717 김 남 집

서 울 한 의 원
한의사 김 장 석 (New York, U. S. A.)
전화 : 1-212-762-4694

침뜸,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 (내장질환) 박 영 숙
진료시간 : 매일10AM~8PM 전화 : 922-7090
700 ONTARIO ST. #517(St. Jamestown)

아세아한약상사
645 Bloor St. W.
전화 : 530-0522 조 지 섭

회계사무소

YOUNG C. LEE M.B.A.R.I.A. "METRO WIDE"
ACCOUNTING & TAX SERVICES
8년간의 캐나다 회계및 세금조정, 현 CA Office근무중
BOOKKEEPING & ACCOUNTING
MANAGEMENT CONSULTING, INCOME TAX PREPARATION
전화 : 239-6802 이 영 철

김인규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501 Yonge St. #207, Toronto
전화 : 960-5736(B), 844-0178(R)

정필주회계사무소
전 C. A. FIRM ACCOUNTANT
4750 Jane St. Suite No. 608 전화 : 661-1819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개인세무및 보고서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 A BLOOR W. 전화 : 533-7573(B)

김명숙 회계사무소
484 BLOOR ST. W. TOR.
전화: 537-3171(B), 669-2710(R)

*** 한국일보 안내광고 ***

아세아 한약방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물리치료, 부인병
신경통 각종보약.
678 BLOOR ST. W.
☎ : 530-0522(B)
531-4165(R)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한국안내광고

LISBON AUTO COLLISION INC.
●토잉써비스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RUST PROOFING
B)533-8507 533-8508
이영두. 이건학

구 인

사람을 찾음.
정경희(여) 부군 MR. 양.
부산태생으로 10여년전에 오타와에서 결혼
딸이 10~12살 정도 됐을것으로 짐작.
찾는이: 미국 발티모 최선희
집: 1-301-256-9088
B: 1-301-686-0192
혹은 몬트리얼 조병철
집: 1-514-486-7945
B: 1-514-484-3541

미치 일본 식당에서 일하실 요리사와
혹은 견습요리사 구함.
459 Church St. Tor.
전화 : 924-7501(오후12 : 30~오후6 : 00)

양복점 기술자 구함
남자 테일러, 여자재단사
중국인이 경영하는 고급양복점으로 작업환경이
좋고 고급기술을 습득하기에 좋은곳.
희망자는 직접 내방하기 바람.
737 Broadview Ave. Toronto 부로드뷰와댄포스남쪽

디자이너를 위한 손으로 짜는(Handknitter)
재봉일 하실분.(영어를 할수 있어야함)
전화 : 487-7779 Kathy

Rose Garden 웨이추레스 급히 구함
경험자. 영어가능자 원함.
전화 : 654-6609 12시 이후 연락바람

가게에서 일하실 남자분 구함
(오후 6시~밤11시) Queen St. E.
전화 : 466-3995

피아노 레슨 학생구함
경력 : A.R.C.T. U Of T B.M. Performance
전화 : 531-4579 신 수명

일본음식점에서 부엌일 도우실분과
Handyman (Part time) 구함
195 Richmond St. W. 전화: 977-9519 Harry

지렁이 (Weston & Finch 지역)
전화 : 741-2557

입주하셔서 아기 둘 보아주실분 구함
전화 : 929-0882

경험있는 여자자켓 만드실 Full Time 재봉사 구함
(주급 : $220부터~)
전화 : 368-2819 (Mr. Wong)

지렁이 잡으실분, 당일지불(Cash)
친절하고 편안한 서비스로 우대함. 경험자 환영
전화 : 537-6345(롬), 531-0773(김)

아이스크림 스토아에서 일할 학생구함.
(미시사가지역 여학생환영) 전화 : 277-8772

Mac's Milk Store에서 일하실 캐셔구함. (주3일 : 금. 토. 일)
26시간 1 Week
전화 : 221-9051

구 혼

결혼상담실 (한국기원 내) 상담자 : 최규찬 김운서
653A BLOOR ST. W. TORONTO.
전화 : 533-0168 매일오후 1시~10시

매매및 양도

"가 구" 직접 공장에서 만들어 파는 까닭에 여러모로
고객에게 도움을 드립니다.
1) 3 pcs. Wall Unit. $199
2) 7개의 설합달린 책상 $65
3) 거울달린 화장대 $79
4) Bed room set(9 pcs) with mattress $399
5) 5 pcs. Kitchen Set (식탁 + 4개의 의자) $89
6) 쇼파 4 pcs. $399 etc.
937 QUEEN ST. W.
전화 : 364-0984 REMA FURNITURE

---

1. 대지와 건물및 도너스숍
넓은 대지에 집이나 스토어 건축가능. 40만불 요구
다운페이 15만불
2. 주매상 $6,500의 DONUTS SHOP
Long Lease, Downpayment : $100,000 아스킹 : $230,000
3. 주매상 $8,000의 DONUTS SHOP
Downpayment : $100,000 아스킹 : $290,000
이훈모부동산 전화 : 225-1204

Variety & Hardware Store 매매
주매상: $9000이상 권리금및 Stock은 All Cash
요구. No Mortgage! 리스 4년+옵션 5년
361 Carrville Road, Thornhill Ont. (Hill Crest Mall옆)
꼭히 관심있으신분 내방바람.

Milk Store 매매
주매상 : $4,500. 리스 : 5년+옵션5년
394 Browns Line, Etobicoke, Mr. Kim

모든 면허가 나와있는 레스토랑(Tavern)
급매. 중국음식과 한국음식을 겸해서 할수
있는 좋은 장소임. 매우 좋은조건의 Rent
와 Long Lease. 좌석 : 156석
위치 : 21 Vaughan Rd.
Ask Paul or Ivan 전화 : 656-9503

성능좋고 속도빠른 사진 식자기
(SAKEN SPICA - K)를 급매합니다.
문의처 : 한국일보사
전화 : 533-2364 Mrs. 김

OPEN 1년된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도코저 함.
주매상 $3,500 렌트 $500
두대의 비데오 머신에서 렌트비 카바함.
전화 : 961-9780(B) (오후6시안으로)

좋은위치에 3 Bed Room 포함한 토론토
북쪽에 위치한 조그만 마을의 수입좋은 가게 매매
Royal Trust Real Estate
전화 : 773-6101, Bud Eige

큰 규모의 그로서리 스토아 매매
2,400 sq. ft. 주매상 : $7,500
아스킹 : 7만불+스탁
전화 : 769-9704(5시이후)

건물및 상점(그로서리 & 버라이어티) 급매
현주매상 : $8,500~$8,800 아스킹 : $229,500
로타리오 머신 (별도)
237 ParkLawn Rd.(관심있으신분 내방바람)

---

3 Bed Room 건물딸린 Variety Store 급매
Hamilton Downtown Busy area.
주매상 : $4,200~$4,500 Extra 순수입 : $900~$1,200(월)
Ask Mr. Kim 전화 : 1-525-2115

Building For Sale
토론토 서부지역 매우좋은 위치의 Corner building
10 Apartments, 7 Stores
Yearly Income : $79,000
Yearly Expense : $23,500
First Mortgage : 13%, 1985년까지
아스킹 프라이스 : $439,000
Call Spiros 762-9134

경쟁없는 그로서리 & 버라이어티 스토아(Tuck Shop)주매상 : $3000이상 (꼭히 관심있으신분 내방바람. 위치 : 114 Forsythe St. (Oakville)

MITA COPIER 500D (Very Good Codition)
사무실용으로 적합.
전화 : 533-2364 Mrs. 김

그로서리 기프트 스토아 매매
주매상 : $6,000 위치는 동쪽
연락처 : 281-2730 강(11시~5시)

성업중인 그로서리 및 버라이어티 딸린
건물 급매
전화 : 532-8260

써브-마린 가게 급매 아주 좋은 조건임. (Barrie중심지역)
전화 : 1-705-722-7422. Mr. Eloi 낮12시-오후10까자연락
낮12시~오후10시까지 연락바람.

BIBLE STORY (전 10권) Set $240.-
전화 : 769-4366 (오후 6시이후)

Using Language Laboratory, You can learn
English within 3months (집에서)
전화 : 533-7324, 533-4966

Varity, Fruit & Vegetable Stores For Sale
(꼭히 영어로 문의하시기 바람)
Call Peter Chung 636-1504

Mac's Milk 급매
전화 : (B) 368-0686, (R) 292-2024

성업중인 버라이어티 스토아 급매
주매상: $3,000 렌트: $300(Mon.) 리스: 5년
2988 Lakeshore Blvd. W.

성업중인 쥬니어 데파트먼트 스토아 급매
Open Hour : 월-토 (9:00a.m-9:00p.m) 꼭히 관심있는분의
연락바람. 전화 : 1-576-7021, 1-576-9899(밤9시이후)

버라이어티 스토아 급매
주매상 : $4,200-4,500. 아스킹 : $29,000+스탁
1000 Pape Ave.(꼭히 관심있으신분 내방바람)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Hamilton지역)
주매상: $4,500. 아스킹: $45,000+스탁. 리스: 7년+10년(옵션)
리스: 7년+10년(옵션) 전화 : 1-388-4825 (Mr. 유)

최고의 거주지역에 위치한 Corner Variety Store!
(독립2층빌딩및 비즈네스)(Detached Drick Two Story Building)
아스킹: $239,000 주매상: $4,500이상
다운페이: ¼ 아스킹 프라이스
Carol Chao 596-8681
Gulios Aloi Real Estat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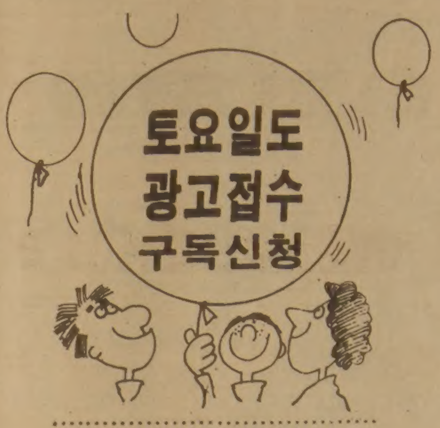
2 Ton(2000 Kg) 적재할수 있는 Condition좋은
Trailer 매매 가격 : $1,200
전화 : 532-0602 (3시에서~6시사이에 연락바람)

하우스 렌트

클링톤하우스 693 Bloor St. W.
일.주.월. 일정한 기간에 상관없이 Rent하실분.
Christie Subway에서 100m거리 아리랑식당앞.
꼭히 관심있으신분 내방바람.

즉시 입주 가능한 교통이 편리하고 1년반된 최신식 시설의 미장원 Rent($500/Men.) (St.Clair × Weston)
전화 : 763-3289, 444-1322

당신기업은 불황을 보르는
사업체로 키우고 싶지 않읍니까 ?
안내광고(CLASSIFIED)는 저렴한 비용으로
놀라운 광고효과를 드립니다.
전화 : (416)533-2361~4



오전10시부터
오후 5 시까지

☎ : 533-2361~4
한국일보광고부

가 구 점

ECOSYS FURNITURE
2300 YONGE ST.
전화 : 486-0397 김 만 구

LEON'S 가구·카페트·전자제품
20 McLevin Ave(세파드×마캄)
전화 : (B) 291-3818, (R) 749-9687, 746-0981 조석민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E.
전화 : 751-9236, 757-2106 홍 진 표

SIGN & GRAPHIC
건축설계상담시공
바우종합광고회사 637A BLOOR ST. W.
전화 : 535-0647, 465-1722 송 관 현

꽃 집

다우스 꽃집 (DAWES FLORIST)
◉각종 어랜지먼트 & 각종플랜트 ◉각처 주문배달함
464 DAWES RD. (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전화: 751-5851(B) 757-6711(R) 이 동 환

제인·파크 꽃집 (JANE PARK PLAZA안)
각종파티, 생일, 결혼, 장례꽃주문·배달함.
875 JANE ST. TOR. 전화: B) 769-0609 R) 242-5194(여정웅)

정 쓴 꽃 집 MARKLANDWOOD PLAZA 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전화: 622-8516(B), 279-3719(R) 허소피아

도 서 판 매

World Book(백과사전)
☎ : 533-2364(Mrs. 김)

메리야스

온가족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 메리야스
602 BLOOR ST. W.
전화 : 532-5394(B), 742-0737(R)

쌍방울 메리야스
Weston Mall (웨스톤 × 휜치)
전화 : 746-3458

미 용

ANNIE'S BEAUTY CARE CENTER
Skin Care, Ear Piercing, Fashion Make up.
각종 미용상담에 관해 전화문의도 받읍니다.
6093 Yonge St.(영 × 휜치)
전화 : 223-7884 Mrs. Lee

킴스미용실
(코리아하우스 뒤)
전화 : 532-7094(B) 438-0628 (R) Mrs.Oh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커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옆)
전화 : (B)759-8854, (R)755-2759 미세스 허

로마노미용실 김 초 자
330 Dixon Rd. W.
전화 : 248-2957(B) 247-6875(R)

스타미용실 미세스 김
남녀 커트, 파마전문, 9am-8pm. 일, 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741-4410, (R)742-0827

마야미용실 631 Bloor St. W.
한국관 앞, 서울여행사 이층
전화 : 588-1480(B), 243-8026(R)

백 화 점

미 도 파
454 BLOOR ST. W. 전화 : 536-1692

번역및통역

번역, 통역 (통역은 월요일만 합니다.)
CHARLES YU (유좌석) 10 SUNRISE AVE. UNIT 203,
M4A 2R1 전화 : 759-9505 (5시 이후)

보 험

CANADA LIFE (강학수)
전화 : 868-0922

SUN LIFE (김신명)
전화 : 922-3111

김종조 종합보험
전화 : 535-7200

임페리알 LIFE (김홍량)
전화 : 961-3774

SUN LIFE (백용빈)
전화 : 497-3800

조규혁 종합보험
전화 : 233-6236

SUN LIFE (윤호영)
전화 : 922-3111

사무용구및 계산기

SKY WAY Business Machines
215 Carlingview Dr. Unit 109 Rexdale
전화 : 675-1295 김 인환

사 진

KIM'S CAMERA 여권사진 즉석촬영
각종카메라 · 전자제품 판매및 수리, 각종 증명사진
619 BLOOR ST. W. 전화 : 534-1085 김 춘 탁

새 한 칼 라 현 상 소 전화 : 535-7772
결혼 · 돌사진 · 각종 증명사진 · 회갑 · 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630 BLOOR ST. W. TOR.

무 지 개 칼 라
COMMERCIAL · ART PHOTOS · WEDDINGS VIDEO 촬영
36 Neapolitan dr. 전화 : 438-4435 오후3시30분~오후9시30분

선물 센타

거 북 이
617 BLOOR ST. W. 전화 : 535-2143

빅 · 세 븐
678 BLOOR ST. W. 전화 : 533-7966

MISTER O FOR MEN
전화 : 964-2606, 869-0589, 275-2187

소 독

ZAP SUREKILLER 전화: 368-9018, 366-0960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스 포 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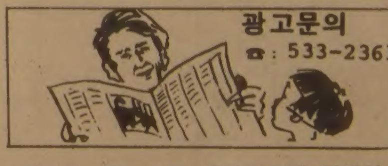
브랜든운동구점 (종합운동구점)
각종단체 유니폼및 트로피, 골프, 스키장비
일체 취급
337 BLOOR ST. W. 전화 : 598-3732 이전영

MUNAMI TROPHY & SPORT
각종트로피및 상패 50% OFF
GOLF PRO SHOP
영업시간 : 월~금: 10a.m.~8p.m. 토: 10a.m.~6p.m.
880 Ellesmere Rd. Scarboro. 전화 : 298-3584

시계·귀금속 수리

M & J JEWELLERY REPAIR 시계및 귀금속 수리
1530 Albion Rd. Rexdale (Kipling × Albion)
전화 : 742-1205(B), 745-1632(R) Mr. 마

광고문의
☎ : 533-2361



광고료 · 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VISA master charge